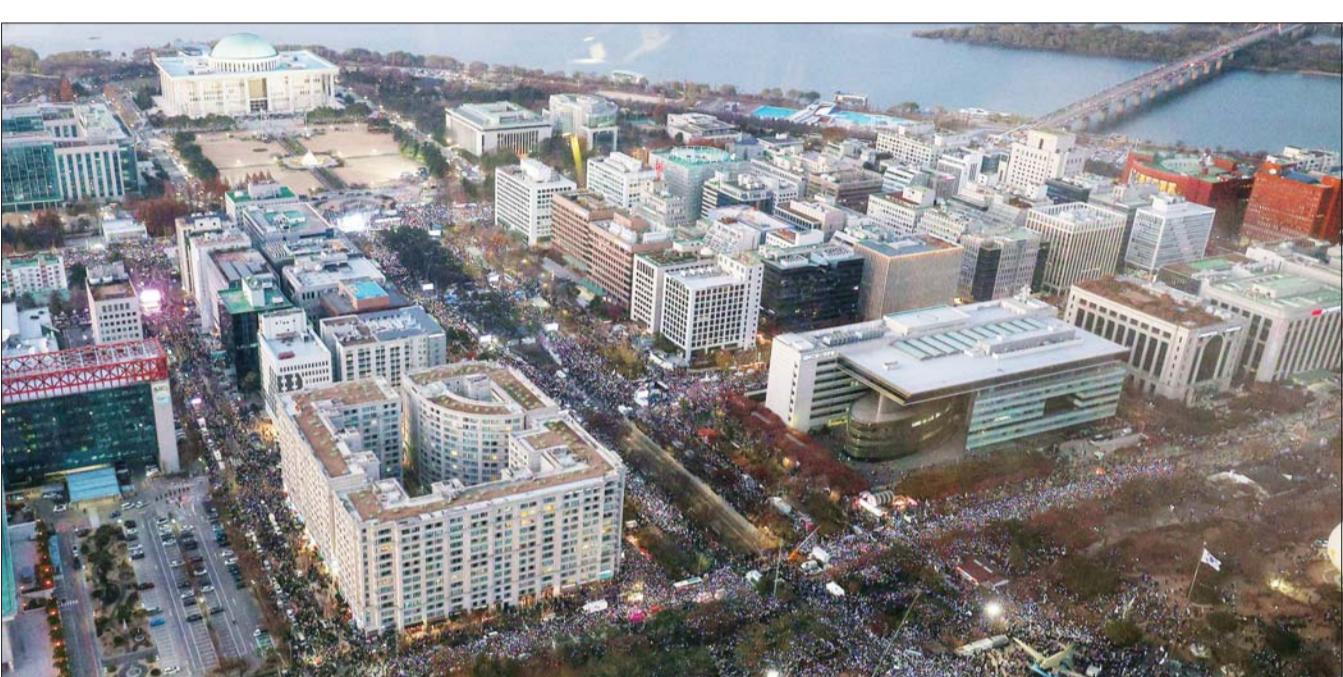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94.46	↑ 코스닥	693.73
	(+12.34)		(+10.38)
↓ 금리 (미국 3년)	2.541	↑ 환율 (원/달러)	1435.20
	(-0.008)		(+3.30)

대한민국 '시계제로', 헌재로 넘어간 공... 180일 내 결론

尹 대통령 탄핵가결 '직무정지'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가담 혐의 행정부 최장 6개월 가량 '마비' 민주당 "위기국면 극복에 집중"



'尹 탄핵' 외치는 시민들 물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야광봉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다. 현재는 심판사건을 접수받으면 18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고,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행정부가 최장 6개월 가량 마비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의 예산 삭감·탄핵 남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즉시 국회로 국회의장 및 의원들이 모여들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답장을 타고 넘어간 의원들은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됐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다. 계엄 선포의 후폭풍은 강력했다. 야권은 즉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연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됐고, 검찰·공수처·경찰이 수사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진입 시키려 했다는 사실, 일부 인사들의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는 사실 등이 속속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단번에 통과된 것이 아니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올려진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두 번째로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은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2차 탄핵안 투표가 가까워지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 당내 반발을 샀다. 결국 탄핵안 투표에 12명이 찬성하며 이탈하자,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 수순을 밟으며 여당은 내분에 들어갔다. 반면 170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부터 탄핵까지 정국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된 헌재,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기 대선 전망에 15일 "오로지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국 안정과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여당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동조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일단'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분간 정국 안정에 집중한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마치기 전까지 행정부는 사실상 야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탄핵가결 관련기사 2·3·4·6면〉

이재명, 혼란 수습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한덕수 직무대행 탄핵 하지 않기로 "대한민국 위기 조속히 매듭지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라며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외교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찾아온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도도한 강물 위의 풍랑처럼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며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극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궈낸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 제1당인 우리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띄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신인도 지킬 것"

최상목 부총리, 긴급 경제장관회의 범정부 옴부즈만 TF 가동 '신뢰 제고'



최상목 부총리, 긴급 경제장관회의 범정부 옴부즈만 TF 가동 '신뢰 제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5일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는 또 금융시장의 등락 폭이 줄었다면서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하루 만에 장관급 모임이 소집됐다. 그는 "저희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의 대외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윈스톱으로 해결해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한다. 최 부

총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일단 진정됐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 가결 전에 언급한 대로 우리 경제가 건설하다는 점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향후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 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 나간다"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 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변·민주노총 위원장,尹 내란 혐의 고소·고발인 조사 출석 /사진 뉴시스
- ▲정유라 "아차피 헌재 가면 승리...이제부터 진정한 보수의 시간"

- ▲신지호 "친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계엄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냐"
- ▲탄핵안 가결까지 열흘간 국회 지킨 우원식 퇴근... "국민이 함께 해줘 든든했다"



-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소한 송년회, 차분한 분위기로 재개"
- ▲행안부,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 "빈틈없이 연말 안전관리" /사진 뉴시스

美 트럼프 정부에 탄핵까지... 재계, 글로벌 시장 대응 분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대적 인사... IRA 폐기 대응책 마련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장단 협의회... '빠른 실행력' 주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국내·외서 타운홀 미팅 '소통강화'

최태원 SK 회장

배터리사업 살피고 AI·DT 역량 결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법 재판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및 가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두 탄핵 가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던 재계는 헌법 재판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내년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사업 전략 마련에 집중한다.

이재용 회장은 연말 경영진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략을 위한 전략

을 논의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분야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 경쟁사에 크게 뒤처지자 대대적인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폐기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5년 가까이 이 회장의 경영 족쇄간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2심 재판도 준비해야 한다. 부당합병 의혹 사건 2심 선소가 내년 2월 3일 내려

진다. 구광모 LG 회장은 글로벌 대응 방안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 회장은 지난 12일 사장단 협의회를 열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경영 과제를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최고경영진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본격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중국 기업들의 위협이 현실화하는 등 국내외 경영 환경의 위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은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하고, 집중력 있게 실행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중장기 미래 경쟁력,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더욱 치열한 고민과 속도감 있는

'빠른 실행력'을 주문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내년 사업 전략 논의에 집중한다. 정 회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장에서도 타운홀 미팅을 진행, 임직원과 소통을 강화하며 미래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12일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면서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을 중심으로 진용을 갖추고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부회장으로 승진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을 겸직하고, 외국인 최초로 현대차 사장에 내정된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한국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정 회장을 정점으로 장 신임 부회장, 무뇨스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는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자동차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신년사와 경제계 신년인사회 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의 연례 업무는 그대로 수행할 계획이다. 대신 그룹 차원의 일정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경영 구상에 매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배터리 사업을 살리면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T)에 역량을 결집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지정학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재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기업들이 향후 세계 시장 사업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영진이 수시로 소통하며 새해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금융시장 동요 방지... 국정공백 최소화를”

경제단체들, 국정혼란 대응 촉구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 하고 국회, 초당적 차원 여야간 협치를 정책수단 총동원 소상공인 살려야”

경제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길 염원하고 나섰다.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철저한 대응도 촉구했다.

15일 경제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입장문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고, 정부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차질 없는 예산집행을 통해 경제, 산업 각 분야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뒷받침함으로써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글로벌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아울러 “국내 정치 상황의 향방을 떠나 진취적인 외교와 기업 맞춤형 산업 정책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고관세, 반도체법과 IRA 폐기 등의 정책 기조를 내세운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재표결이 통과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에서 기뻐하고 있다. /뉴스1

대한상공회의도 전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코멘트’에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를 향해서도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향후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넘기고 이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하루속히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면서 “정치권은 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와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 협의체 협의과정에 소상공인 대표도 함께해 명실상부한 경제·민생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경제 주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차분히 기업 운영과 생산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중견련도 “한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군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아래, 기민한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과감한 투자와 채용 확대를 통해 경제와 민생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들도 경제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모든 국정, 헌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한덕수 권한대행-美 바이든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국내 상황과 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그 회복력을 평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 15분 바이든 대통령과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에 이뤄진 통화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



이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 /서예진 기자 syj@

권성동 “국힘, 여전히 여당” 野 제안 거부

>> 1면 '이재명 혼란 수습...서 계속

이 대표는 “당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은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과 기존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상태로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한 직무대행과 전화통화를 나눴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 직무대행에게) 이제는 여당이 중심이 아니라 여야 가리지 말고 성과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한다고 했고 이

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1당과 2당 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차가 반영된 것이기에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 “우선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고위 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등 정부 끝날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단기적 환율 변동성 확대 전망 “헌재 판결 이후 제자리 찾을 것”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트럼프 2기 통화정책 변수
“1410~1420원대 움직일 것”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당분간 환율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헌재 소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단기적 혼란이 예상된다. 환율은 헌재 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 관측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개최한다. 탄핵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숙의한다.

앞서 주식시장 등에서는 탄핵안 가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됐던 만큼,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빠르게 상승한 환율의 조속한 안정대책이 예상된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6.20원에 야간 거래(오전 2시 종가)를 마쳤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 선포 직전

인 지난 2일 대비 29.70원(2.11%)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긴급 계엄선포 당일(11원↑)과 1차 탄핵안 부결 직후(8원↑) 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14일 국회가 2차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2차 계엄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환율은 당분간 변동성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앞선 탄핵 정국에서도 탄핵안의 국회 통과 직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직후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1.8원 올랐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당시에도 환율은 하루 만에 7.4원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004년 3월 12일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같은 해 5월 14일까지 환율은 50원에 달하는 변동성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2017년 3월 10일까지는 80원 가까이 움직였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혼란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강 달러 추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 변

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원·달러 환율 상승 시점은 달라질겠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집권 1기 때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다”라며 “이는 원·달러 환율의 동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정치 불안이 더 확대되지 않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정치적인 혼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견제도 있는 만큼 일단 많이 내려가기보다는 1410~1420원대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간 환율 변동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환율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탄핵안 통과 이후 헌재 판결 전까지 불확실성이 반복될 전망이다. 결국 완화 수순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계엄 가능성 소멸 등 정치리스크 완화 수순에 따라 2~3개월의 추가 변동성 이후 빠른 회복세가 기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AI 제도화 이미지

“AI 제도화 등 韓 첨단산업 재정비 기회”

IT업계, 시민단체 등 법안 정비 요구

제까지도 요구하기도 한다.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마무리 됐지만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연내 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헌 AI 기본법이 본회의 통과 일정이 불투명해진 만큼, 법안의 부족한 점과 주요 문제점을 새롭게 고친 새 입법안을 낼 기회로 보고 있다.

15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상정될 예정이었던 AI 기본법이 탄핵 정국을 맞아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에서 대폭 수정한 새 입법안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개발·활용·산업육성·악용 등 여러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토대가 될 기본법안이다. 현재 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 앞까지 간 AI 기본법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 108인이 공동발의한 안이다. 국민의힘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또한 관련 법안을 4건 발의했으나 심사소위를 넘진 못했다.

대표적으로 법안에 대해 제기 되는 문제는 이용자의 안전과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금지된 AI 기술 규정 미기재 ▲고영향 AI 범주 협소 규정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이행 강제를 위한 제재 규정 미비 ▲이용자 권리 및 구제방안의 부실성 ▲AI 감독을 위한 독립적 감독기관 부재 등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적용 배제 조항의 삭

제까지도 요구하기도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AI 기본법이 산업 발전에 치중돼 위험성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며 관련해 국회 국방위 통과 AI 법안 시민사회 입법건의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에서는 또다른 측면에서 보완점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771개 회원사는 주요 국회의원들에게 ‘AI 기본법 지지 및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세제 혜택, 펀드 조성 및 데이터의 개인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익 분배 체계 확립, 경제 생산성 혁명과 산업적 성장 등 산업 성장을 위한 내용을 추가로 제시했다.

IT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에 담긴 가장 큰 문제를 법안 실효성 여부로 보고 있다.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AI 기술에 발맞춘 법안이기 보다는 이미 지나간 기술에 대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무의미 하다고 평가 받는 조항은 AI 생성물 확인을 위한 워터마크(식별표시) 삽입 명시다. 이미 식별표시 삽입 방식과 데이터 교란 방식 등 최근 1년 내 AI 생성물 표시 대책으로 대두됐던 기법이 모두 파괴된 상태인데 뒤늦게서야 무의미한 기술을 거론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업계에서 AI 기본법에 대한 추가 보완점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현재 AI 기본법이 법사위까지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업계 내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AI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원전·시추 등 尹정부 주요 산업정책 ‘안갯속’

원전 전기본 국회 통과 미지수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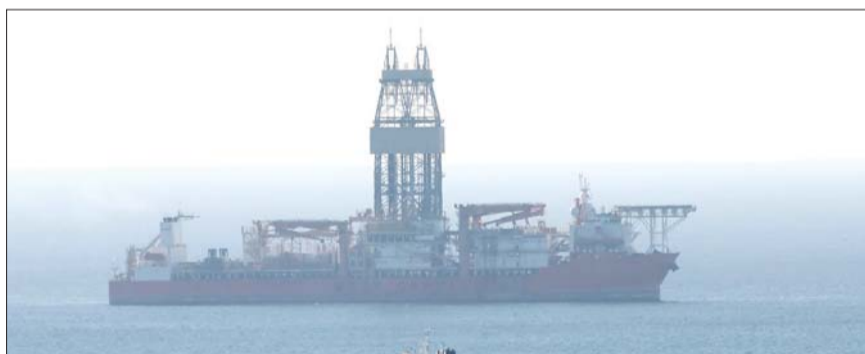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 표가 붙은 주요 산업정책에도 불뚱이 될지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치적으로 삼으려던 산업정책은 국내 신규 대형원전 건설, 체코 신규원전 수출과 동해 대왕고래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등이 꼽힌다.

우선 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뒤집으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국내 신규 대형 원전 3기 건설부터 불투명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마련, 2038년까지 최소 3기의 신규 대형 원전을 건설하고, 2035년부터는 첫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가동하기로 하고, 이달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되면서 원전 신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게 됨에 따라 원전 전기본이 국회 보고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11차 전기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경우, 한미 양측 정상외교가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 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첫 시추를 진행할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사 소속 드릴십인 ‘웨스트 카펠라호’가 지난 9일 오전 부산 영도구 외항에 정박하고 있다. /뉴시스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한-체코 양국은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을 내년 3월 체결할 예정이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자사 기술을 활용한 원전 수출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원전 수출 원칙에 관한 기관간 MOU’에 가서명하며 양측 분쟁에 긍정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MOU가) 현존한 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MOU 최종 서명이 안된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은 대통령 부재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삭

아버렸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며 야당을 비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발표에 나선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야당의 반대 속에 첫 탐사시추 예산이 전액(497억원) 삭감되며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가 비용 1000억원 전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첫 탐사시추 작업을 할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재 부산외항에서 시추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오는 17일 출항해 20일경 동해 유망구조 해역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시추 가능성이 불투명한 반면, 비용부담이 큰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첫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오지 않는한 차후 시추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법안 최대한 처리”

>> 1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서 계속

해당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게 된다.

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 석유화학·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다.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고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계엄령 여파로 표류 위기에 처했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산업의 명운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대외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해, 경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혼란한 상황 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동훈 '버티기'에 친윤계 반발... 탄핵 후 보수 내홍 심화

최고위원 사퇴 속 직무 수행 논란
친윤계·홍준표·김태홍 사퇴 촉구
한동훈, 비대위 임명권 갈등 예고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표직에 오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며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한 대표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한 대표가 이대로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친윤(친윤석열)계와 갈등이 불보듯 뻔해 보수의 갈등과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친윤(친윤석열)계, 친한(친한동훈)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고 있다. 친윤계인 김재원·인요한·김민진 최고위원, 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모두 사퇴했다. 당헌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하면 당 지도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1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혔으나, 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나와 의원총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원들이 재신임했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 당론을 어기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따지자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제가 투표를 했나요?"라며 반박했다. 이후 의총이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6일에 다시 의총을 열고 차기 지도부 체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 시 당 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 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은 비대위 설치와 동시에 상실되는데, 한 대표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중진 의원이나 원의 인사들은 한 대표를 직격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첨부된 언론 기사 63건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으며, 한 대표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고 털어놨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 (22대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당헌 96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홍 충남지

사도 목소리를 냈다. 홍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겨냥해 "동귀여진(同歸於盡) 상대와 함께 죽는 일이 목표가 아니었나"라며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 할뿐"이라고 했다. 김태홍 지사는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친한계는 친윤계를 비판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해야 거부했는데 탄핵도 하지 말자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게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친윤들 대답 좀 해 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겠지만 아니다. 홍준표(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 내쫓기가 실패하자 당헌·당규에도 없는 의원총회로 한동훈 대표를 내쫓고 한다. 조금씩 보인다.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탄핵심판대 오른尹 대통령... 내란죄 쟁점, 신속한 결론이 '관건'

현재,尹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개시
접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최종 결정
문형배 권한대행 "공정한 재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면서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현재는 오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관심은 탄핵심판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에 쏠려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전날(14일) 오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받고 '2024헌나8'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16일 정해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는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문형

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심판 절차가 빨라질 수도 있다.

현재 변론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면 대리인단을 꾸려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범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사건접수 후 63일 만에 현재 결정이 나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건접수 후 9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기간이 달랐던 이유는 사건의 쟁점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 났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탄핵이었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당시 최순실) 씨와의 국정개입이나 뇌물 수수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므로 시일이 더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안에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동', '내란 범죄 행위'라고 명시된 윤 대통령의 경우는 얼마나 걸릴까. 일단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인데다 '내란죄'이므로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는 시각이 있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

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 혐의로 정식 재판에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지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강행규정은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로 진행되는 만큼, 사안이 중대해 현재에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재 '6인 체제'에선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되는 셈이다.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이 임명 절차를 밟고 있어 이달 중에는 현재가 '9인 완전체'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

與 이탈표, 8년 만에 62표서 12표... 분열 줄이고 결속 선택

대안 없는 현실 속 보수 생존 본능
보수 궤멸 공포로 형성된 공감대
영남권 중심 탄핵 트라우마 작용

8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당시 탄핵안에 찬성한 인원은 234명이었다.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62명이 찬성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2024년 12월 14일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2명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탄핵 트라

우마'가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찌됐든 탄핵은 보수층의 궤멸로 가는 길이니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는 앞선 두 차례의 탄핵안 표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표가 적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인 2004년 3월에는 표결에 참석한 195명 중 193명이 찬성(당시 재석의원은

272명)했다. 그리고 12년 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99명 중 234명이 찬성을 선택했다.

특히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다수 찬성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171석이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합세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다. 그 당시 이탈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소 62명이다.

당시 여당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커진 상태였고, 양쪽의

비중이 엇비슷했다. 게다가 여당은 128명으로, 20명 이상이 탈당해도 100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당시 여론에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라는 대권 잠룡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고 탈당한 후보수 내에서의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있었다. 대안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도 야6당이 정당한 연대를 했고 여당 내부의 찬성론도 있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까지 밝혔다. 하지만 2016년과 다르게, 원내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비중은 차이가 컸다. 양 계파간 세력의 차이는 지난 12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친윤계를 포함한 영남권 의원들은 보수진영의 '탄핵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었다. 2016년 당시 초선이었던 의원들은 현재 3선 의원이 됐고, 이들을 중심으로 '탄핵만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탄핵안 투표에도 영남권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는 다르게 더 큰 비난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집회는 몇주간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흘 만에 탄핵안이 가결됐다. 그만큼 여론의 분노가 크므로, 보수 진영 '절멸'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예진 기자

나누고 싶은 따뜻한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의 여유로
행복한 한 해가 되었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언제나 따뜻한 향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순간이 행복해지도록

Maxim
커피라는 행복



응원봉, K-Pop, 유머러스 깃발... 콘서트 같았던 '탄핵시위'

현장르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이 승리했다. 만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투표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내질르면서 모두 뛰어올랐다. 시민들은 함께 온 가족과 지인과 열싸 안기도 하고 서로 처음 보는 사람과도 손을 잡고 돌며 기쁨을 나눴다. 눈물을 닦는 시민도 보였다. 해가 저물어가는 때, 기쁨에 뛰어오르는 사람들이 쥘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응원봉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빛났다.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 이상, 경찰의 비공식 추산 20만명이 모였다.

1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인파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9호선 국회의사당역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그 행렬은 지하철 여의도역 인근까지 이어질 정도로 끊임없이 늘어났다.

2시부터 간헐적으로 여의도역 및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행을 이어간 지하철은 3시부터는 본격적으로 멈추지 않았다. 또 여의도역을 시작으로 산업은행과 KBS 앞부터 이어진 이동통신이 먹통이 되며 물려든 인파 규모를 증명했다.

‘2030 여성’ 시민들이 응원봉이나 깃발을 흔들며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아이돌 그룹 사이니의 응원봉을 가져온 커플 이은나(35)·강한울(33)씨는 응원봉을 연신 흔들며 탄핵을 촉구했다.

이씨는 “10년 전 사이니를 좋아하던 때 산 것인데, 남자친구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샀다”며 “더는 사이니를 좋아하지 않아도 기왕 가지고 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주최측 100만명, 경찰 20만명 추산 이동통신 먹통될 정도의 인파 몰려 집회 찬송가 대신 가요 메들리 이어져 개인, 성소수자, 장애인 깃발 ‘눈길’ 주요 외신, 응원봉 시위 문화 주목 젊은층 주도 ‘민주주의의 희망’ 호평

는 것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10대 소녀들도 집회에서 목소리를 더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 참여한 고등학생 이서연(18)씨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 응원봉을 흔들며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투표권은 없지만 다음 대통령 시기에 나는 대학생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경기도 의왕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이씨의 친구들은 서로 다른 아이돌 응원봉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지지 집

회의 찬송가 대신 가요가 계속 이어지는 여의도 탄핵 지지 집회의 분위기는 흥겹고 즐거웠다.

사람들은 달리 가사가 보이는 화면 없이도 노래를 따라부르고 때로는 자유롭게 개사했다. 사람들이 듣고 흔들리는 응원봉은 아이돌 봉부터 아이스크림 컵에 전구를 채운 것과 경광봉까지 망라했다.

깃발 또한 그랬다. 여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나온 깃발보다 개개인이 만든 유머러스한 깃발이 눈에 띄었다.

‘푸바오 한국 송환 추진위원회’ 깃발을 든 플로(니네임)씨는 “깃발은 혼자 만든 것”이라며 “이전 집회를 살펴보니 사람들이 깃발을 잔뜩 들었는데 웬지 나도 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무지개색이 눈에 띄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 투쟁’ 두 깃발을 든 사람들도 있었다. 두 깃발을 작게 만들어 휠체어에 꽂은 휠체어 사용자인 장한나(46)씨는 “여기까지 오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다”며 “오히려 배려받았고, 내 휠체어에 꽂힌

깃발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탄핵 가결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들썩였다. 국회 밖을 지키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다. 강추위에 응원봉을 들고 시린 손을 불던 시민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뛰고 웃었다.

정훈영(53)씨는 “지금 너무 감격스럽다”며 “드디어 법치가 바로서고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음을 지었다. 이모(42)씨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혜영(48)씨는 “20년 만에 이렇게 방방 뛰는 적은 처음”이라며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던 주요 외신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한국 국민들의 ‘응원

봉’ 시위 문화를 집중 조명했다. 과거 ‘촛불 시위’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국민들이 이번엔 ‘응원봉’으로 축제 같은 새로운 시위 문화를 보여줬다며, 특히 20~30대 젊은층이 주도했고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AP통신은 ‘K-Pop 응원봉이 한국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시위를 장악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달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축출을 요구하는 시위에 K팝 응원봉, 크리스마스 조명, 심지어 산타클로스 복장까지 등장했다”며 “윤 대통령의 짧게 끝난 12.3(계엄)령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고 독특한 시위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P는 “젊은 시위대는 전통적으로 음악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K팝 응원봉을 들고 거리를 점령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 시위의 새로운 트렌드를 시작했다”면서 “노동조합과 정당의 정치인과 대표들이 집회 선두에서 연설하고 이끌며 시위를 주도했지만, 이번 시위는 이전과 달리 응원봉과 케이팝을 앞세운 젊은이들이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계엄령 계략으로 탄핵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제하 보도에서 “아이들 동반한 부모나 연인, 노인 주민 단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응원봉을 흔들는 등 시위는 정치 시위가 아니라 K팝 콘서트처럼 느껴졌다”고 보도했다.

WP는 “탄핵 촉구 집회에 모인 군중들은 최근 몇 년간 전형적인 정치 시위보다 젊어졌다. 10대 후반과 20대 한국인들은 케이팝 콘서트에서 응원봉을 가져와 나이 든 한국인들과 함께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고 호평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교과서 도입·의대증원 불확실성 고조

내년 AI 교과서 도입 계획 차질 의료계, 증원모집 정치 목소리 2026년부터 동력 잃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전격 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증원’을 두고도 의료계에서는 당장 중단하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5학년도 입시 신입생 모집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한 추가 논의는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AI교과서를 ‘교과서’로 전격 도입하겠다는 교육 당국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 중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AI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시스

디지털교과서는 더이상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돼 교과서처럼 의무 사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무상교육 대상도 아니게 돼 일선 학교에서 도입하는 데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간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윤 정부가 밀어붙여 온 ‘의대 증원’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부가 추진한 증원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는 신입생 모집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경우 2026년부터는 증원 추진에 동력을 잃으며 ‘1년 증원’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비상계엄령 사태 이전부터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출구를 열어둔 바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여야 대치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윤 정부 표 교육 정책의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ihj@

뭇 “국민께 사죄... 사회·경제적 안정 시급”

탄핵소추안 통과 후 SNS서 사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며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다”며 “현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를 넘어서 서민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거국적 협력과 위기 극복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항상 모든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현 국정 상황 지속, 내수 경제 침체, 물가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서울시 민생안정 대책반’을 꾸려 가동 중이다. 대책반은 지방행

정팀, 지역경제팀, 안전관리팀, 취약계층지원팀 총 4개팀으로 구성됐으며,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대책반장을 맡았다.

지방행정팀은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물가 안정 및 불법·사기성 행위 집중 단속, 체감경기 회복, 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소비 진작 지원을 한다.

안전관리팀은 인과사고 예방·집회 안전관리에 나서고, 취약계층지원팀은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이 시정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 서울시의회 여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방송인 김여준 씨를 고발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상대 진영을 압박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3일 김여준 씨를 국회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바르게 行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져라, 옳은 길을 가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이 됩니다

바른 경영, 바른 금융이란
오래전부터 알고있던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
그 가치를 고객과 함께 하는 것,

BNK 금융그룹이
바른 경영으로 바르게 行하겠습니다



CEO 리서치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글로벌·WM 성과 ‘1조 클럽’ 기대감… 투톱 연임도 청신호



미래에셋증권이 ‘전문경영인 2세대’ 체제로 재편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해외사업 강화와 자산관리(WM) 경쟁력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져가고 있다. 지난해 말 창업멤버들의 용퇴로 그룹 전반에 걸친 파격적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그 결과물로서 김미섭·허선호 두 부회장이 이끄는 각자 대표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습이다.

◆ ‘글로벌+WM = 쌍두마차’, ‘1조 클럽’ 정조준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주식·채권 위탁매매수수료와 글로벌 자산관리 부문, 그리고 플랫폼 기반 연금·WM 영역에서 성과를 내며 올해 다시금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재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인도 현지 증권사 인수도 완료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투톱 경영진의 연임 가능성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은 창업멤버 중심의 경영진을 물리고, 미래에셋증권에 글로벌 경험이 풍부한 김미섭 부회장과 WM·연금 자산관리 노하우를 쌓아온 허선호 부회장을 각자 대표로 전면 배치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실적 면에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분기까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90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섰고,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증가하며 6600억원대에 이르렀다. 연간 기준으로 ‘1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지배적이다.

이 같은 실적 반등 배경에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개선이 주효했다. 허선호 부회장이 선봉에 선 WM 부문은 연금자산을 업권 최초로 40조원대까지 키워내며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해외 주식위탁매매 부문은 오랜 기간 미국·홍콩 등 글로벌 거점에서 쌓아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며 거래대금과 수수료 점유율 모두 선전했다.

3분기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70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286억) 대비 147.9% 증가한 규모다.

이 밖에도 IB(기업금융) 영역에서도 엘앤에프, 산일전기 등 굵직한 IPO 딜들을 주관하며 실적을 올렸다.

해외법인의 경우는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해 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등으로 발목이 잡혔던 해외부문이 올해는 세전 이익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하며 본격적인 이익창출 부문이 됐다.



김미섭 대표이사 부회장



허선호 대표이사 부회장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미래에셋증권

3분기 누적 영업이익 9000억 넘기고 당기순이익 40% 늘어 6600억 성과

WM부문 연금자산 40조대 키워 거래대금·수수료 등 점유율 선전

인도 공략… 증권사 ‘쉐어칸’ 인수 현재 10위서 5년내 5위 도약 목표

미국·홍콩에서 안정적 이익 확보 인도·베트남선 위탁매매 등 강화

◆ 해외시장 개척 본격화…글로벌 대형 증권사로

미래에셋증권의 성과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미 미국, 홍콩을 비롯한 선진 시장에서 주식·채권 중개와 투자은행 업무로 쓸쓸한 수익을 내는 가운데, 최근 인도 현지 10위권 증권사 ‘쉐어칸(Sharekhan)’ 인수로 신흥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7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자본시장에 진출한데 이어 6년 만에 국내 최초로 현지 기업을 인수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나스닥 전광판에 소개된 미래에셋증권.

‘Sharekhan Limited’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며 인도 중앙은행(RBI)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지난 달 28일 인수를 완료했다.

인수 완료 직후 쉐어칸은 ‘미래에셋 쉐어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310만명 이상 고객 기반, 120여개 지점, 4400명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유한 쉐어칸은 향후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 WM 및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미섭 대표이사 부회장

- ▲출생 - 1968년생
-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주요경력
 - 1998 미래에셋자산운용 입사
 - 2000 미래에셋캐피탈
 - 2002 미래에셋자산운용 해외법인 대표이사
 - 2014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사업부 문대표
 - 2021 미래에셋증권 혁신추진단 사장
 - 2022 미래에셋증권 Global사업담당
 - 2023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 허선호 대표이사 부회장

- ▲출생 - 1969년생
- ▲학력 - 조선대학교 경제학 학사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주요 경력
 - 1995 조흥증권
 - 1999 대우증권 IB부, 금융상품법인영업부
 - 2009 대우증권 금융상품법인영업부장
 - 2014 대우증권 전략기획본부장
 - 2016 미래에셋증권 경영지원부문대표
 - 2021 미래에셋증권 자산관리(WM)총괄
 - 2022 미래에셋증권 WM사업부 대표이사
 - 2023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특히 쉐어칸 인수와 관련해서는 김미섭 부회장의 역할이 컸다. 김 부회장은 미래에셋증권 내 대표적 해외전략가로 손꼽힌다.

김 부회장이 수장으로 나선 미래에셋증권은 금리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미국·홍콩 등 선진 시장에서는 주식·채권 중개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고, 인도·베트남 등 이머징 시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위탁매매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며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해나갔다. 이런 노력을 토대로 해외법인들은 올 들어 꾸준히 세전 이익을 거두며 회사 전체 실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인도 증권시장을 ‘넥스트 차이나’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인수 전 현지 증권사 10위였던 쉐어칸을 인수 후 5년 내 상위 5위권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쉐어칸 인수는 인도를 핵심 성장 시장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두려는 미래에셋의 의지를 나타낸다”라며 “인도 고객들에게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부의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외 확장은 단순한 외형 성장에 그치지 않는다. 각 국가별 차별화한 비즈니스 모델, 예컨대 선진국 시장에서는 주식·채권 중개 중심의 안정적 수익 구조를, 신흥시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세우며 지역별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단순 전개가 아닌 ‘유기적 연결’로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을 ‘글로벌 종합 금융투자사’로 격상시키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 장기 비전 투톱 리더십…주주환원·내부체질 개선까지

‘전문경영인 2세대’의 올해 행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미섭·허선호 부회장의 내년 3월 연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두 부회장의 리더십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긍정적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미래에셋증권은 2023~2026년 주주환원성향을 35% 이상으로 설정하고, 자사주 1억 주주까지 약속하며 ‘책임경영’을 강조한 바 있다. 글로벌·WM 투톱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환원과 내부통제 강화, 운용 리스크 관리 고도화 등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개혁 조치도 속속 이행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미섭 부회장의 국제적 전략 안목과 허선호 부회장의 내실 강화 역량을 결합한 ‘투톱 경영’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장경제 속에서도 균형감 있는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나가며 지속가능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활약과 성과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시한 ‘전문경영인 시대’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하나금융지주 조직쇄신

하나은행, '손님 우선주의' 확립...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차기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내정
진성영업 통해 글로벌 수익 확대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 연임



이호성
하나은행장 후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핵심 계열사인 은행장을 교체했다. 트래블로그 카드로 소비자의 만족감과 수익성을 극대화시킨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이 주인공이다.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이 줄곧 강조한 '손님 우선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손님·현장 중심 조직문화 혁신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그룹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주계열사인 하나은행장 후보로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을 추천했다.

그룹입추위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증대

되고 있다"며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내실있는 영업으로 손님과 현장중심의 조직문화를 이끌어갈 인물로 이호성 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대구 중앙상업고를 졸업하고 1992년 하나은행에 입행했다. 강남서초영업본부장, 중앙영업그룹장, 영남영업그룹장, 영

업그룹장을 거쳤다.

특히 이 후보자는 하나카드에서 해외여행 특화카드인 트래블로그 카드를 흥행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트래블로그 카드는 해외 가맹점을 이용하거나 해외의 ATM에서 현금인출시 수수료가 무료다. 타 카드와 구분되는 점은 소비자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처음 트래블로그 카드는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연동한 뒤 하나머니 앱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고객이 쓰던 계좌 그대로 연동해 트래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고객을 우선하는 서비스는 실적으로 나타났다. 하나카드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844억원이다. 이 후보자가 하나카드 사장으로 취임했던

2023년, 3분기(1274억원)와 비교하면 45%가량 증가했다. 금융지주계열 카드사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이는 하나금융의 '손님 우선주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하나은행에서도 손님과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영업이 아닌 진성영업을 추구한다.

이 행장 내정자는 공식 취임 이후 글로벌 부문 수익확대를 꾀할 전망이다.

◆ 내부통제 강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가능성 커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커졌다.

함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취임해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된다. 하나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8이사의 재임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중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

종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했다. 2028년 3월까지 연임이 가능해졌다.

또 내부통제부문에 힘을 실은 것도 함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실는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에는 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하나증권에는 강성목 대표이사를 연임시켰다. 이승열 현 하나은행장은 부행장으로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관리와 기업가치 제고에 전념한다. 함 회장과 함께 내부에선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부문을 강화하고, 주계열사를 통해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 관계사 후보들은 추후 개최되는 각 사 임추위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선임이 마무리된다. 임기는 은행과 카드는 2026년 12월 말, 증권은 2025년 12월 말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하나카드, 법인 등 영업 강화... 非은행 핵심 계열사 육성

차기 대표에 성영수 부행장 내정
영업통 평가... 법인시장 진출 박차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을 내정했다. 이호성 사장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으면서 '여행은하나카드'란 공식에 이어 법인카드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져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성 부행장은 1965년생이다. 진주중앙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에서 행정학

을 전공했다. 이후 하나은행 입행 후 ▲경기영업본부장 ▲외환사업단장 ▲기업금융전담역 ▲하나은행 경기영업본부장 ▲CIB그룹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기업그룹장으로 재임 중이다. 입행 후 영업 일선에서 경험을 쌓았던 점에서 이호성 사장과 궤를 같이 한다.

하나금융은 또한번 '영업통'을 선택했다. 성 부행장은 하나은행 영업1부 부장에 이어 경기영업본부장을 연달

아 지냈던 만큼 그룹 내에서 영업의 잔뼈가 굵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업통으로 불리는 이 사장 체제 아래서 업계 내 입지를 확대했던 만큼 영업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은 법인카드 영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부행장은 구로공단과 인천에서 기업금융전담역을 맡아 관 삼아 지점장직에 오른 바 있다. 기업그룹장을 지낸 데다 앞서 CIB그룹

장으로서 인수금융에 관한 역량을 갖췄다. 그간 카드사들이 진입 속도를 늦췄던 분야에서 새 공식을 만드는 하나카드의 영업전략에 꼭 맞는 셈이다.

하나금융은 성 부행장의 하나카드 사장 추천 배경을 두고 "하나은행에서 쌓은 기업 영업 부문과 외환 부문 경력을 토대로 최근 성장세를 나타내는 법인카드 시장과 트래블로그 등 글로벌 관련 상품의 시장 내 위치를 확립하고 그룹의 비은행 부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교통·인프라 갖춘 신개념 지식산업센터... 삼성디지털시티 등 직주근접

Q 르포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잠실올림픽주경기장 3배 크기 호텔급 시설 등 하이엔드 표방

"우리나라에서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식산)로 연면적이 10만평을 넘는 곳은 현재 두 곳밖에 없고,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가 준공하면 세 곳이 됩니다.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주변에 주거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편의시설까지 다 갖춰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지식산이라고 봐야 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삼성삼거리 인근에 들어서는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지하 6층, 지상 최대 33층, 5개 동으로 구성된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준공은 오는 2029년으로 예정됐다.

부지는 원래 아모레퍼시픽 수원공장 이었던 곳으로 연면적이 34만6350㎡(10만4954평)에 달한다. 잠실올림픽주경기장 3배 크기로 롯데월드타워보다도 넓다고 보면 된다. 현재 지식산 중에서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모형도.

는 '오산현대캐러타워'와 '다산현대프리미어캐팜스' 정도만 연면적이 10만평 안팎이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의 입지는 주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곳이다. 인근에서 보면 지식산으로는 '시그니처 광교 2차' 이후 2년 만의 신규 물량이다. '흥덕IT밸리'가 10년 전에 입주했는데 현재 공실이 없는 상태다. 이에 반해 삼성디지털시티와 가까워 협력업체 등 배후 수요는 풍부하다.

아울러 그간 지식산의 단점으로 꼽혔던

교통과 인프라 시설도 잘 갖췄다. 단지 바로 앞 중부대로(42번국도)를 통해 주변 산업단지로 이동하기에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서 약 4.7km 거리다.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은 일부 구간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가 입주하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식산에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재를 수월하게 뽑기 위해서인데 주변에 주거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 직주근접이 가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건물주택에 마련된 모델 내부. /안상미 기자

능하다"며 "10~15분이면 광역교통망에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하이엔드 지식산을 표방했다.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입주자 전용 컨시어지도 도입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세미나 룸과 미팅룸, 리셉션 라운지 등이 들어서며, 영상촬영 및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예정되어 있다. 휴식을 위해서는 게임룸과 피트니스클럽이 생긴다.

분양가는 동이나 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3㎡당 평균 2000만원 안팎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0

분양 캘린더

11개 단지 7641가구 분양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7641가구(일반분양 532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역센트럴아파트',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역라운 프라이빗리버포레', 경기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푸르지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 1곳이 오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일원에 '곤지암역센트럴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4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347가구 규모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원에서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 '더샵퍼스트월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최고 49층, 5개동, 아파트는 전용면적 39~118㎡ 총 999가구이며, 이 중 아파트 총 800가구를 금회 공급할 예정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차세대 AI·XR로 재도약... “강화된 기술력으로 시장 승부”

삼성전자, 새해 미국서 언팩
갤S25, 고도화된 AI로 혁신 예고
전작대비 얇아지고 무선 충전 강화
구글·퀄컴 협력 XR 헤드셋 공개
XR 글라스 대신 헤드셋 출시 반전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카루젤 뒤 루브르(Carrousel du Louvre)’에서 개최된 하반기 ‘갤럭시 언팩 2024’에서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실적 악화에 빠진 삼성이 내년 1월 언팩을 앞당겨 열고 위기를 극복할 야심작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능이 한층 강화된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하는 한편 삼성 최초의 확장현실(XR) 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갤럭시 S25시리즈는 고도화된 음성비서 ‘빅스비’가 탑재되고 무선 충전이 가능한 것은 물론 두께도 전작보다 얇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앞서 구글, 퀄컴과 함께 개발해온 XR 헤드셋의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XR 관련 조직을 강화할 전망이다. 애플의 ‘비전프로’와 달리 편의성을 한층 높여 XR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1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5시리즈를 공개한다. 이번 S25시리즈 라인업은 기존 ▲기본형 ▲플러스 ▲울트라에서 ‘슬림’을 추가해 4가지 라인업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 갤럭시 S22 울트라 이후 3년 만에 버건디 색상이 추가될 전망이다. IT 팁스터(정보 유출자)들을 통해 알려진 색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블루,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실버, 티타늄 버건디 등이다.

◆고도화된 AI 기능 및 차세대 무선 충전기 탑재

이번 언팩은 그간 2월에 열려왔던 일정을 앞당겨 1월로 진행된다. 이는 AI 스마트폰을 빠르게 선보여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니엘 아라우호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S25시리즈는 갤럭시 AI 경험 완성도를 더욱 제고해 실사용 중심의 일상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갤럭시 S25 울트라는 고도화된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16GB 램이 탑재될 전망이다. 폰아레나와 샘바일 등 해외 IT매체에 따르면 갤럭시 S25 울트라는 ▲12GB 램·256GB ▲16GB 램·512GB ▲

16GB 램·1TB 등 3가지 옵션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16GB 램을 탑재는 갤럭시 S21 울트라 이후 4년만이다. 삼성전자는 그간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고성능 모델의 경우 12GB 램, 일반 모델은 8GB로 유지해왔다.

앞서 애플도 최근 출시한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자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위해 램 용량을 8GB로 늘렸다. 이에 램 용량의 확대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한층 더 고도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갤럭시 S25시리즈에는 음성비서 ‘빅스비’ 기능도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빅스비에는 거대언어모델(LLM)이 적용되며 한층 강화된 자연어 처리(NLP) 능력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갤럭시 S25시리즈는 아이폰의 무선 충전 기능인 ‘맥세이프’와 같은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 무한 등 XR 기기 최초 공개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에서 첫 XR 헤드셋인 ‘프로젝트 무한(Moohan)’ 등 자체 XR 기기를 선보일 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월 갤럭시 언팩에서 막바지에 갤럭시링의 티저 이미지를 선보인 만큼 새로운 웨어러블 제품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삼성전자가 처음 선보인 XR 기기는 일반 안경과 비슷한 모습의 AR 글라스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고글 모양과 비슷한 XR 헤드셋이 공개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미국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XR 언락(XR Unlocked)’ 행사를 개최하며 ‘안드로이드 XR’ 플랫폼과 이를 탑재할 최초의 기기인 ‘프로젝트 무한’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XR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XR(eXtended Reality)은 사용자가 시각, 청각, 움직임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물리적 제한을 업무, 학습, 엔터테인먼트 등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프로젝트 무한은 기기에서 나오는 스크린 공간에 가상 콘텐츠와 앱이 배치돼 이용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니AI 등과 대화하면서 현재 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홍범식 LGU+ 사장 스타트업 데모데이 참석

“LG유플러스는 스타트업과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스타트업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시발점이 쉬프트입니다”

LG유플러스는 홍범식 사장이 공식 첫 행보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쉬프트(Shift)’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홍범식 사장은 ‘인공지능(AI)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망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뤘고 고객 감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쉬프트’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 연구소의 창업팀과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8개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이 기업들에게는 ▲익시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및 인프라 등 기술 지원 ▲사업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LG유플러스와 사업 협력 ▲전용 펀드를 통한 지분 투자 검토 등 기회가 제공된다. /구남영 기자

금호석화그룹, 안전·환경 강화로 지속가능 경영 선도

ESG 경영 핵심은 ‘안전·환경’
첨단 기술로 고위험 요소 관리



금호석유화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그룹 ESG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사의 안전 및 환경경영 현황을 공유하며 공통의 전략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그룹이 환경과 안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계열사별 안전 및 환경 관련 통합 데이터를 포함하면서, 그룹 차원의 ‘안전’과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캠, 금호티앤엘, 금호리조트 등 주요 계열사들이 그룹 ESG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사의 안전 및 환경경영 현

황을 공유하며 공통의 전략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환경 관리 시설 투자로 사업장 내 악취유발 물질과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했다. 여수 1공장에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발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습식세정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여수 1, 2공장 플레어 스택에 배출가스의 불안전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발열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금호미쓰이화학은 2공장 증설과정에서 원부재료 리사이클 공정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 폐수 리사이클 공정의 완공에 따라 폐수내 유기물질을 회수 및 추출하여 제품 생산의 원료로 재활

용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폐수내 수질 오염물질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폴리캠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및 악취 발생 개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 배출원 관리 시스템(LDAR)을 구축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여수와 울산 사업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기반 안전환경 시스템을 강화 중이다. 사업장별 작업 현장과 고위험 장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보안카메라인 AICCTV를 설치해 화재, 가스 누출 및 작업자 이상행동 감지 또는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 파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이 공식 첫 행보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쉬프트(Shift)’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SK브로드밴드 ‘키즈 콘텐츠’ 제작

SK브로드밴드는 15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B tv ZEM 챔어워즈’ 프로모션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키즈 서비스 B tv ZEM이 선정한 ‘2024 TOP 50’ 인기작을 구매한 고객 모두에게 키즈 전용 놀이펜이자,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지원하는 리모컨 ‘챔펜’을 증정한다.

특히 ‘살아있는 영어’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유아용 푸쉬카, 가습기, 삼풍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살아있는 영어’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맞춤형 영어대화 서비스로, 영어 발화 내용을 이미지로 그려주는 AI 드로잉 기능과 한국어와 영어 혼용 음성인식 엔진을 업계 최초로 적용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배달의민족, ‘참여형 나눔’으로 가치 더한다

지속가능 사회공헌의 새 기준
“고객과 파트너의 공감 속으로”



엽서를 쓰고 있는 산타라이더. /우아한형제

산타 복장을 한 라이더가 손편지를 전달하고, 매장 대신 이동식 ‘밥차’에서 요리를 준비하는 사장님이 등장하는 등 외형상 평소 업무와는 다른 형태의 나눔활동을 벌이는 플랫폼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음식배달 서비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수년간 사장님, 라이더, 고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사회공

헌’ 활동을 지속하며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사내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우아한팍방울’을 비롯해 배민 플랫폼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사장님, 라이더, 고객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배민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파트너 및 이용자와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아한팍방울은 원래 우아한형제들 임직원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2021년부터는 사장님과 라이더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같은 해 추석에는 배민 임직원 및 배민프렌즈(사장님 커뮤니티) 2기

멤버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떡만두국 밀키트 제작에 동참하며 메뉴 선정, 조리, 배달 전 과정을 직접 이끌었다.

라이더 참여도 활발하다. 2021년 연말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배민 라이더들이 산타 복장으로 변신, 직접 쓴 손편지와 케이크·빵·화용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을 아동복지기관 어린이 100여 명에게 전달했다. 두 차례에 걸친 이른바 ‘산타 라이더’ 활동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5월 임직원, 사장님, 라이더가 모두 참여한 우아한팍방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尹 탄핵안 가결에 국내증시 반등 기대감... 글로벌 경제 '변수'

탄핵안 가결 분위기 형성되자
투자심리 개선 돼 코스피 회복세
과거 탄핵정국 때와 유사 예상
반도체, 은행 등 추가반등 전망
中 경기부양책, FOMC 결과 집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거 탄핵 정국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경제 흐름은 여전히 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계엄사태 직후 4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5.58% 떨어졌지만, 이후 회복세를 찾으면서 5.67% 상승했다. 지난 9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2400선도 붕괴됐지만, 마지막 거래일 기준 2494.46에 마무리하면서 다시 2500선에 근접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

된다. 과거 탄핵 정국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증시가 회복됐다. 시장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계엄령 사태가 정점에 달하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탄핵 국면으로의 진입과 계엄 사태 수습 과정이 가속화

되며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코스피는 2016년 탄핵 국면과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을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좋지 않았으나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기 전까지 코

스피는 9.5% 하락했다. 반면, 2016~17년에는 대규모 쏠집효과가 이뤄질 정도로 여론이 탄핵을 원했다. 이 때문에 탄핵 청구일부터 선고까지 3.6% 올랐다. 게다가 2017년 코스피 연간 수익률은 22%로 높은 편이었다.

하반기부터 순매도세를 지속했던 외국인 투자자들과 계엄 사태 이후 ‘패닉 셀(공포 매도)’ 현상을 보였던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도 기대되고 있다. 계엄사태 직후였던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2조 5264억원, 외국인은 9629억원을 순매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 기간에 기관이 2조 8000억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다.

해당 기간 개인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로 각각 4665억원, 5263억원씩 털었다. 하지만 기관의 순매수 1위 종목도 삼성전자였던 만큼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4.7% 올랐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탄핵 가

결 이후 국내 증시의 추가적 반등 여력은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오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할 시 국내 증시에서는 연간 낙폭과대 업종 중 2025년에도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은행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방산 등이다. 코스피가 연초 수준인 2600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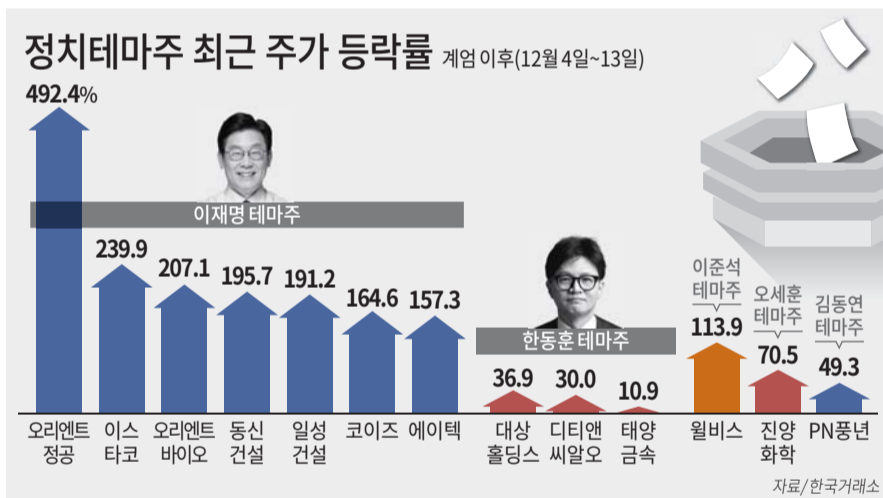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영향은 주로 단기적이었고, 중장기적 주가의 방향성은 글로벌 경기 방향성이 좌우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경기 부양책 세부 내용과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오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신하 기자 godhe@metroseoul.co.kr

‘투기장’ 된 정치테마주... “변동성에 투자 유의 필요”

李 관련주 ‘오리엔트정공’ 492.40% ↑
韓 관련주 ‘대상홀딩스’ 36.89% ↑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성 높아 ‘주의’

경기 부진에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정치테마주만 급등락을 반복하는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정치테마주로 인식된 일부 종목은 실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정권 교체 가능성을 반영하며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등 현상이 단기적인 재료에 의존한 것으로, 재료 소멸 이후 급락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정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한 직후인 4일부터 13일까지 8거래일 동안 주가가 1131원에서 6700원으로



492.40% 상승하는 폭등장세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이스타코(239.94%), 오리엔트바이오(207.13%), 동신건설(195.69%), 일성건설(191.21%), 코이즈(164.63%) 에이텍(157.27%) 등 다른 관련주들도 급등했다.

오리엔트정공과 오리엔트바이오는 과거 이재명 대표가 오리엔트정공 계열

사인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주목받았다. 이 대표는 해당 공장을 방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스타코와 일성건설은 이재명 대표의 주택 정책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됐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에이텍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운영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던 최대주주의 인연을 이유로 관련주로 편입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들 역시 계엄 사태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대상홀딩스는 36.89%, 디티엔씨알은 30%, 태양금속은 10.9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상홀딩스는 배우 이정재와 한동훈 대표가 친구 사이로 알려지면서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됐다.

태양금속은 한우삼 대표가 한 대표와 같은 청주 한씨라는 점에서, 디티엔씨알은 사외이사가 한 대표와 서울대 법대와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가 됐다.

양당 대표뿐만 아니라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정치인의 관련주도 투자자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준석 테마주로 꼽히는 월비스(113.94%),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 진양화학(70.48%), 김동연 경기도지사 테마주인 PN풍년(49.26%) 등이 계엄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인과의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묶여 형성되는 정치테마주는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관련 테마주들이 단기간 주가가 2~3배 상승했다가 이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정치테마주들이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완화 전까지 증시의 추세적 정상화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는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큰 만큼 테마주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비상 계엄’ 이용 불법리딩방 사기 기승

금감원 Q&A

제도권 금융회사, 앱 설치 요구 안 해

Q: 최근 성행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최근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고 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기의 형태로는, 불법업자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등을 게재

해 네이버 밴드로 유도합니다. 그 후 상장주식을 장외 대량매매로 싼 가격에 매입해 매일 수익이 난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바랍잡이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투자 성공 사례 등을 보여주면서 주식거래 앱이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입니다. 그 후 자금을 대어 하여 초기 투자자금 없이 많은 수익을 얻은 것처럼 꾸밈니다.

이들은 수익금 출금을 신청할 때 ‘원금상환’을 요구합니다. 원금상환시 상환 방법이 잘못됐거나, 세금 등 납부를 빙자해 출금을 지연하거나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게 불법업자들의 일반적

인 수법입니다. 기억해야 할 부분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개인 메신저나 채팅방을 통해 거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틈타 금융감독원이 자금출처 조사를 요구, 검증을 위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말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추가됐습니다.

금감원은 계엄령 등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상황을 악용하여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를 권하거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운용, 코리아밸류업 ETF 총보수 인하

업계 최저 수준인 0.008%로 인하
기초지수 흐름 반영되도록 운용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코리아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의 총보수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08%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기초지수로 최대한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다.

이 ETF는 패시브 스타일에 맞게 기

초지수 흐름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장 후 코리아밸류업 지수가 -1.13%를 기록한 반면 이보다 0.03%포인트(p) 양호한 -1.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 상무는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정통 패시브 상품에 맞게 기초지수와 연동된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더불어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만큼 이번에 업계 최저 수준인 0.008%로 총보수를 인하한 효과가 코리아밸류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중견 제약사, 신약 중심 고속성장... '매출 1조 클럽' 예고

HK이노엔 전문의약품 사업 순항
미·중 등 글로벌 시장 적극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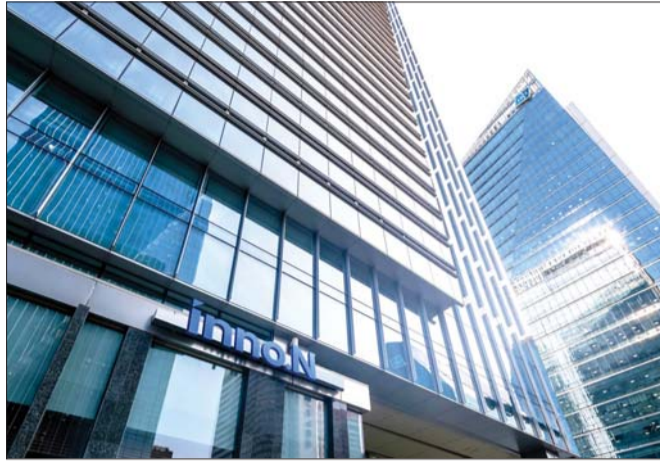
보령 3분기 역대최고 실적 달성
'K신약' 공동판매 전략 고도화

HK이노엔, 보령 등 국내 중견 제약사들이 '매출 1조원 클럽'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제약 산업 성장세가 고무 퍼지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견 제약업체 HK이노엔은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으로 매출 6614억원과 영업이익 638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9.3%, 누적 영업이익은 4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순이익도 32.2% 늘어 424억원을 기록했다.

HK이노엔은 전문의약품 사업의 고 성장세가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HK이노엔 전문의약품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5922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90%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은 고성장을 지속했다. HK이노엔이 제30회 국산 신약으로 내놓은 케이캡은 앞서 지난 2019년에 출시된 후 4년 연속 국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11월 기준으로는 1777억원의 원외



HK이노엔 서울사무소 전경

처방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HK이노엔 측의 설명이다.

HK이노엔은 자사 핵심 품목인 케이캡을 앞세워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중국 등도 적극 공략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지난 2021년 미국 소화기 의약품 전문회사인 브레인트리 레보라토리즈와 5억4000만달러 수준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케이캡 미국 임상 3상에 집중해 왔다. 현재 미국에서 비미란성식도염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 3상은 완료했고, 미란성식도염 임상 3상은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식품의약품(FDA) 품목허가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2022년 5월 '다이신짬'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이후 미란성식도염에서 심이 지장궤양, 헬리코박테리아로리 제균을 위한 병용요법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영향력을 넓혔다.

HK이노엔은 최근에는 중남미 6개국에서 '키캡'으로 케이캡 출시를 완료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신약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HK이노엔과 함께 신약 성공 경험, 영업·마케팅 역량 등을 공유한 보령도 올해 3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썼다.

보령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한 7602억원이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4.5% 늘어난 560억원이다. 누적 순이익은 5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급증했다.

보령은 자체 개발한 고혈압 신약 카



보령 예산공장

/보령

나브론 아니라 HK이노엔의 케이캡 등 'K신약' 공동판매 전략이 성장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보령은 향후에도 공동 판매 제품의 판매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핵심 제품의 시장 침투를 통해 기업 입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보령은 'K신약' 역량을 갖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 적극 협력해 왔는데, 그 동반성장 효과는 향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령은 올해 4월 비보존제약과 '어나프리즈' 국내 상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2월 '어나프리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38회 국산 신약'으로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비보존제약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리즈'를 보령에 완제품 형태로 제공했다. 보

령은 유통 및 판매를 맡는다.

보령은 항암제 분야에서는 레거시 브랜드 인수(LBA) 전략을 펼쳐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레거시 브랜드 인수 전략이란 특허가 만료된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국내 판권을 인수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령은 미국 일라이 릴리의 항암제 젠자, 알립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알립타의 경우,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2.5% 커졌다. 이에 대해 보령은 자사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매출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령은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세포독성 항암제의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보령은 레거시 브랜드 인수 전략의 확장 전략으로, 인수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생산을 내재화하고 이를 해외 시장에 공급하는 모델을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보령은 대만 제약회사 로터스파마슈티컬과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한 CDMO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CDMO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보령은 로터스파마슈티컬의 항암 주사제 생산을 맡아, 관련 인허가 절차 완료 후 오는 2026년부터 해외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방통위, 예산삭감·탄핵소추 혼란... 마비 위기

내년도 예산 2423억... 80억 삭감
위원장 직무 배제로 의사결정 난항

탄핵 정국과 계엄령 논란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통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년도 예산 삭감과 여야 간 정쟁이라는 '이중고'에 빠졌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중추적 역할과 방송·통신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방통위가 주요 정책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80억원 줄어든 2423억원으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빅테크 기업과의 법적 분쟁 대응, 미디어 규제 정책 추진 등 주요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방통위의 정치적 상황도 복잡하다.

여야 간 치열한 대립으로 방통위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 여야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구조적 특성상 정치적 갈등이 심화할수록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야당의 탄핵소추로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전환되며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8월 이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체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정책 과제들이 줄줄이 멈춰 서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와 이통 3사의 공정위 과징금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지연되며 정책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에 각각 205억원과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지만,

후속조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에 대해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지만, 방통위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실태조사 역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방심위의 기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방심위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공영방송 관련 기능을 방심위와 분리하거나 전면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쟁이 지속되면 디지털 전환과 같은 핵심 정책이 표류하며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박차

지역전문가 협의체 연구 보고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전문가 협의체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 보고회에서는 '지역별 농

촌경제 혁신 방안'이 주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광역 지자체(8개 시·도), 지방 연구원(8개 권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기관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에 대해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지역에서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혁신계획을 세우면 정부는 농지 등 규제 특례, 재정·투자 등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소멸위험 농촌지역 지정과 함께 지구 지정 근거법령 마련, 시범지구 지정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2024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

/금융감독원

구분	금융사
양호	삼성화재, KB손보, 현대캐피탈
보통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한화손보, NH손보, 하나카드, 우리금융캐피탈, 페퍼저축은행, 한투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미흡	경남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iM뱅크, 키움증권, 한투증권, 신한카드
취약	유안타증권, 메리츠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 등급 전무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영향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 등급을 낸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은 가장 낮은 '취약' 등급을 받았고, 대규모 금융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금융사들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급은 한 단계씩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024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시행하며, 실태평가 2주기로 들어선 올해는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더해 실질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대상 금융회사는 26개사였으며,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5단계로 기준을 잡고 평가했다. 평가 결과, ▲양호 3개사 ▲보통 14개사 ▲미흡 7개사 ▲취약 2개로 등급이 나뉘었다.

이 중 종합등급에서 '우수'를 받은 금융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그 다음 단계인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삼성화재,

KB손보, 현대캐피탈 3개사로, 상품개발 시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원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제재, 불완전판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9개 사는 한 단계 강등됐다. 경남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iM뱅크·키움증권·한투증권·신한카드 등 7개 사는 '보통'에서 '미흡'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유안타증권은 기존 '미흡'에서 한 단계 내려간 '취약' 등급을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2022년 공모주 청약 전산장애 관련으로 대량의 민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연 처리했다는 이유로 등급이 하향됐다. 메리츠캐피탈은 상품개발·판매, 성과보상체계 운영 관련 소비자 보호체계가 미흡해, '미흡'을 받았으며 '취약'으로 하향됐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각 협회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매출급감’에 손님 발길도 끊겼는데 소상공인 대표 단체는 호화 송년회

소상공인聯, 호텔에서 ‘송년의 밤’
1인당 만찬 식대만 10만원 ‘홀쩍’
300여명 참석, 1·2부 강연 예정
일부 반대에도 위약금 비싸 강행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밥값만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서울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송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내수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연말 특수가 사라져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표 단체가 호화판으로 행사를 여는 것을 놓고 일부에서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2024 송년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자 소개부터 만찬까지 오후 3시부터 약 5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오 장관의 경우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라 직접 자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공연이 이날 진행하는 행사의 만찬 식대는 1인당 약 12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나라안이 어수선해 연말 대목이야 할 소상공인 경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가게마다 손님이 줄어 울상인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하면 대표 단체가 호화롭게 행사를 열기보다 자중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소공연 내부에선 행사 취소 목소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호텔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행사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비싸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행사도 1부 ‘강연’과 2부 ‘송년의 밤’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페어몬트 앰배서더 관계자는 “대규모 행사다보니 임박해서 취소할 경우엔 연회장을 다시 팔지 못하고 (음식 준비 등)발주에도 문제가 있어 고객은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내셔야 한다”고 전했다. 취소하면 70% 가량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공연에 앞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송년 행사를 진행한 벤처기업협회의 경우 1인당 약 8만2000원,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행사를 연 이노비즈협회는 1인당 약 8만5000원의 식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소공연이 지난 12일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매출액과 손님이 모두 줄었다.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소상공인 1630명 가운데 88.4%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든 곳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출액 ‘30~50% 감소’ (25.5%), ‘10~30% 감소’

(21.7%), ‘10% 미만 감소’ (5.2%) 순이었다.

또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소상공인(1441명) 가운데 줄어든 매출액은 100만~300만원이 44.5%로 가장 많았다. 감소액이 ‘300만~500만원’은 29.1%, ‘500만~1000만원’은 14.9%였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 매출이 ‘1000만원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도 11.5%에 달했다. ‘2000만원 이상 감소’한 곳도 5.4%였다.

음식점 등을 찾는 고객도 눈에 띄게 줄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89.2%는 사업장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연말 장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9%는 경기전망을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28.2%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90.1%가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지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10일부터 12일 사이 진행했다. 조사에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이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질소산화물 규제 강화 우려 시멘트업계, 기준 완화 촉구

9개 공장 책임자 ‘공동입장문’
“SNCR 설비 기술 고도화해 운영”
시멘트協 7개사 대표들도 성명
“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 초래”

시멘트업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침체로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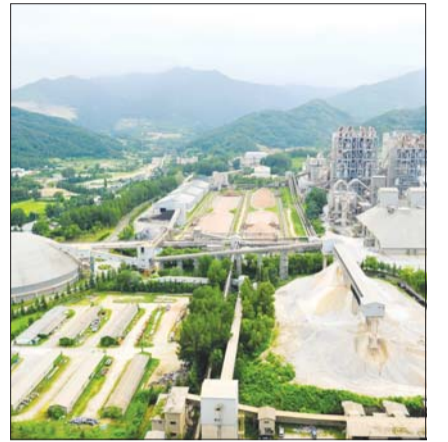
15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멘트사 9개 생산 공장 책임자들은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문’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규제 수치 강화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충북 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생산공장 공장장들은 “시멘트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적극적인 감축과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 도입 모두 동의하지만, 이미 도입해 적용 중인 독일 등 글로벌 시멘트업체에서는 기술적 불안정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보다 2~3배 이상 크고 고집적화된 국내 시멘트 공장에 적용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의 운영 사례만을 참조해 설치를 추진한다면 설비의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 현장에 필요한 시멘트를 적기 공급할 수 없으면 시장 상황을 예측해 시의적절한 생산계획을



시멘트업계가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 완화 요청 등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멘트공장 전경.

수립해야 하는데 고효율 저감 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기술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현재 적용 중인 SNCR 설비 기술을 최대한 고도화해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장장들은 대기관리권역법(충북지역)상 2029년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 농도를 현재 적용 중인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법) 설비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120ppm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한국시멘트협회 소속 7개 회원사 대표들도 지난 9월 공동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고집적된 대규모 시멘트공장에 적용된 사례 없이 다른 산업의 운영사례만으로도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더라도 가능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결국 시멘트 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적용 중인 SNCR 설비 기술을 최대한 고도화해 실현할 수 있는 배출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 성신양화가 이름을 올렸다.

/김승호 기자

이노비즈協, 기술혁신형기업 금융 솔루션 지원

IBK기업銀과 자금조달 등 혜택 제공

이노비즈협회가 IBK투자증권과 손잡고 기술혁신형기업을 위해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지원한다.

이노비즈협회는 IBK투자증권과 ‘이노비즈기업 육성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노비즈기업 육성 ▲이노비즈기업 자금조달 지원 및 금융우대 혜택 제공 ▲IPO 추진 등 직접금융 시장 참여 지원 및 투자 활성화 ▲기업 맞춤형 재무·ESG 컨설팅 및 리서치 세미나 지원 ▲이노비즈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등에 함께 나선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오른쪽)이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IBK투자증권은 이노비즈기업의 기업공개(IPO) 추진 및 자금 조달 지원 뿐 아니라 자금 운용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금융상품 등을 제안한다. 또 운영자금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 컨

설파 지원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IBK투자증권이 이를 반영해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코스닥 상장 특례 제도 활용 등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지속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침대 수납공간 꽤러다임 바꾸다

‘비렉스 수납형 프레임’ 출시
다양한 높이 선반·레일형 서랍 갖춰

코웨이가 넉넉한 수납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수납형 침대 프레임 ‘코웨이 비렉스 수납형 프레임’을 출시했다.

15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렉스 수납형 프레임은 수납공간을 극대화해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헤드보드 상부에 120mm 너비의 선반을 마련해 안경, 핸드폰 등 자주 쓰는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다. 좌우 측면에도 다양한 높이의 선반을 비치해 책, 일상용품 등을 손쉽게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속옷, 양말 등 매일 쓰는 아이템을 수납하는 레일형 서랍 2개와 계절에 따라 정리가 가능한 병커형 수납공간 2개를 탑재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도 돋보인다. 서랍부 레일은 헤켈레사의 고품질 댄핑 언더레일을 사용해 부드럽게 열고 닫으며, 특히 서랍이 빠르게 닫히는 것을 방지해 손 끼임을 예방한다. 헤드보드 상부 선반에는 난연성 소재의 덮개형 콘센트를 배치해 안전하게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헤드보드에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쿠션형 디자인을 채택했다.

헤드보드는 ▲샌드베이지 ▲스카이 블루 ▲파우더 핑크 컬러로 구성해 부드러운 내추럴 우드 프레임과 함께 침실에 한층 포근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코웨이 관계자는 “넉넉한 수납공간과 내구성, 안전성, 그리고 인테리어 취향에 따른 컬러 선택 옵션까지 갖춰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서 수입 의존도 높은 밀·콩 등 재배

농식품부, 농생명용지 내 시범운영
공개추첨 통해 3개 농업법인 선정
청년농 등 정밀농업 접목 유도 계획
밭쌀 재배 금지... 가루쌀 등 도입

전북 새만금 내 농생명용지에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곳을 밀 등 그간 수입에 크게 의존해 온 기초 식량작물의 특화 재배 단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식품원료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새만금농생명용지 7-1공구에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기술 수용성이 높은 청년농 등 농업법인이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접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특화단지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는 499(499만㎡)를 100ha 이상의 3개 구역으로 나눠 규모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지역인 군산시·김제시·부안군에 있는 농업법인에 최장 10년간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전북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7-1공구 임대구역

/농식품부

임대대상자는 내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의 공모를 통해 농업법인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를 전문가가 평가한다. 이어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뒤 공개추첨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농은 임대차계약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작하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공모에 앞서 이번 달에 공모계획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새만금농생명용지 이용 계획은 수요가 크게 줄어든 밭쌀 대신 타 작물을 키운다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

앞서 지난 9월 농식품부는 새만금을 포함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라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9년도의 1차 계획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올해 2차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간척지 내 일반벼의 재배면적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오는 2030년까지 모조리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업인 등이 신규로 임대할 시 밭쌀 재배가 금지되며 대신 가루쌀 등의 타 작물을 도입해야 한다. 또 간척지내 스마트팜을 비롯해 첨단농업연구, 육종 등의 활용을 확대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및 전남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의 경우, 향후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ha 이상에서 50ha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환경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논의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

환경부는 오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의 후속조치로,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한다. 다양한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검토해 입법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

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 경제, 과학기술,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들과 미래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연구원의 포럼 운영 계획 발표 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경로 수립 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 일정 등 포럼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후미래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탄소 감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코트라, 인도시장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강경성 사장, 이랑텍 방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강경성 사장이 지난 13일 글로벌 사우스 주요 국가인 인도에 5G 통신장비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방문해 기업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강 사장이 방문한 경기도 동탄 소재 이랑텍은 2017년 설립했으며, 기지국 핵심부품인 상호간섭제거 필터와 5G RF(Radio Frequency) 필터를 개발해 국산화된 기업이다. 2022년 코트라 지사와 사업에 참가하며 인도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는 현지 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복 이랑텍 대표는 인도시장에 대해 “향후 통신장비시장에서 빅마켓이 될 중요한 곳”이라며 코트라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강경성 사장은 “이랑텍이 인도 시장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으며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즉시 알려달라”고 했다.

인도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중이며 향후 5년 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의 협력은 제조업 투자에서 반도체, 인공지



강경성 코트라 사장이 지난 13일 경기도 동탄 소재 통신장비 부품 수출기업 이랑텍을 방문해 이재복 대표와 인도 및 글로벌 사우스 진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코트라

능, 우주항공, 제약 등 신형 첨단기술로 확대중이다.

우리 주요 기업들은 인도에서 이미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정 협상도 진행중이다.

강 사장은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인 인도시장 수출현장 점검을 위해 이랑텍을 방문하게 됐다”며 “새로운 기회 요인이 우리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코트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려 전달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역외 기업에 차별 적용 않도록 요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측에 2026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유럽연합 신집행위원회 출범 계기, 호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회에 보낸 취임 축하 서한에 이같은 우려사항을 담아 송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서한을 통해 2026년 1월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서 유럽연합이 동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TF)’, 업계 간담회·설명회 등을 지속 개최하며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위급 면담과 정부입장서 제출 등 우리 의견을 지속 개진해온 결과,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 및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 등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도, 우리측 요청이 반영돼 수출기업이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등록부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민감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 증진할 예정”이라며 “유럽연합의 탄소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동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고용부,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가사 모집

내달 3일까지 대·중소기업 신청 받아

고용노동부는 내달 3일까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

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분야에서 협력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함으로써 산업재

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한다.

대기업에서는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보호구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을 뒷받침한다. 올해에는 대기업 228개소, 사내·외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 3209개소가 참여해 안전을 위한 공정 개선 등 상생협력 활동을 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민물해면 공생 희귀 방선균서 항암효과 발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
신규물질 발견 후 후속 연구 수행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민물해면과 공생하는 희귀 방선균에서 항암 효과와 항염증 효과를 동시에 가진 신규 물질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민물해면은 바다에 서식하던 해면류가 민물 환경에 적응한 종으로, 수심 2~5m에 있는 나뭇가지, 물풀, 자갈 등 다양한 물체 위에 서식하며, 약 150종이 극지를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9년부터 담수 환경에서 희귀 방선균과 이들이 생산하는 유용 물질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희귀 방선균에서 신규 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뒤, 항암 및 항염증 작용 기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방선균은 항생제 등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세균으로, 특히 자연에서 발견이 어려운 스트렙토마이세스(Streptomyces) 속의 방선균은 ‘희귀 방선균’으로 분류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유통·식품업계, ‘오징어2’ 한정판 봇물... 연말 즐거움 더한다

**CJ제일제당 오징어 활용 신제품
하이트진로 참이슬 한정판 출시
GS리테일 도어투성수 팝업 운영
하림 ‘더미식 오징어라면’ 광고 공개**

유통·식품업계가 오는 26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관련 마케팅 전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2021년 처음 공개됐으며 한국 작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미국 로컬 시상식인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6개 부문을 석권하기도 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공식 지식재산권(IP)파트너사인 GS리테일을 비롯해 식품 기업들이 ‘오징어게임 시즌2’ 협업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의 인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즐거움까지 안겨 주기 위함이다.

CJ제일제당은 자사 브랜드 비비고와 ‘오징어게임 시즌2’가 함께 한 글로벌 캠페인을 한국·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전세계 14개국에서 진행 중이다. 협업 제품은 K-스트리트 푸드와 만두, 김치, 김스낵 등 비비고의 핵심 전략 상품을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의 니즈 등에 맞춰 국가별로 구성을 차별화



비비고X오징어 게임 시즌2 글로벌 캠페인 이미지 /CJ제일제당



‘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 /디자인코리아

했다. 국내에서는 비비고 냉동떡볶이, 컵떡볶이 3종, 왕교자, 통새우만두 등을 선보였다.

오징어를 활용한 신제품도 선보였다. 한국에서는 ‘비비고 통오징어만두’와 ‘버터오징어 김스낵’을, 태국에서는 ‘비비고 무말랭이 오징어 김치’를 출시했다. 신제품 출시 외에도 각 나라별로 오프라인 매장에 캠페인 특별 매대를 마련하고, 굿즈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비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지난 9일부터 전국 가정 채널과 일반 음식점, 술집 등 주류 판매업소에서 선보였다. ‘오징어 게임’ 팬들에게 익숙한 영희, 핑크가드, 프론트맨 캐릭터와 참이슬의 이슬방울을 조합해 완성한 라벨을 적용했다. 참이슬 로고의 ‘ㅁ, ㅀ, ㅅ’에만 오징어 게임

대표 색상인 핑크 색상을 입혀 핑크가드의 등급을 상징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을 표현, 디자인적인 재미를 배가시켰다.

또한 에디션 제품과 함께 오징어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4종도 선보였다. 영희 게임기와 핑크가드 두꺼비 피규어는 업소 내 전시와 함께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로, 컬러잔과 앞치마는 음용접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징어 게임’ 인기가 높은 일본, 호주, 멕시코 3개국에도 동시 출시해 의미를 더했다.

오투기는 ‘뿌셔뿌셔 버터구이오징어맛’과 ‘열 뿌셔뿌셔 화끈한 매운맛’ 2종을 출시했으며, 하림은 ‘더미식’ 브랜드 모델인 배우 이정재와 함께 신제품 ‘더미식 오징어라면’ 광고를 공개했다.

GS리테일은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에 맞춰 서울 성수동의 주류 및 팝업 특화 GS편의점 ‘도어투성수’에서 ‘GS25 x 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 팝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 매장에서 달고나라떼, 랜덤달고나, 에너지멜론, 오징어게임 교통카드 등을 판매하며 간편식·디저트·굿즈 등 넷플릭스 협업 오징어 게임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오징어게임 시즌2’ 공개 시점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협업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오징어게임’의 인기가 높았던 만큼 관련 마케팅을 펼쳐 인지도 상승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고 조금이나마 연말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외식업계는 위축된 소비심리 완화를

위해 과격적인 가격을 내걸고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다이닝브랜드그룹의 아웃백은 연말을 맞아 자사 앱 내 ‘선물하기’에서 기프트카드 5종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요일별로 각기 다른 인기 메뉴를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메뉴권도 판매한다.

CJ푸드빌의 패밀리 레스토랑 ‘빽스’도 연말을 맞아 ‘홀리데이 그리팅스’ 콘셉트의 겨울 신메뉴를 출시했다. 또 연말 프로모션 기간 동안 스테이크와 샐러드바를 세트 구성한 2인용 커플세트와 3인용 패밀리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세트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100% 당첨 혜택이 담긴 ‘행운의 랜덤 포춘 카드’를 선착순으로 제공해 샐러드바 무료 이용권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참이슬x오징어게임2 참이슬 병 3종 /하이트진로

SSG닷컴 “패션, 완구 등 최대 90% 할인”

**20일까지 ‘쇼핑 익스프레스’ 행사
매일 오전 10시 장바구니 쿠폰 증정**

SSG닷컴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령대별 인기 제품을 특가에 제안하는 ‘쇼핑 익스프레스’ 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가전, 리빙, 패션, 뷰티, 여행, 완구 상품을 최대 90% 할인한다.

SSG닷컴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20대~30대 연인을 위한 선물로 패션 상품 400여 종을 준비했다. 마이클코어스의 지갑, 스니커즈, 코트 등 공식 브랜드 상품 최대 90% 할인가에 제공한다.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해외여행 상품



‘쇼핑 익스프레스’ 행사 이미지 /SSG닷컴

과 한우 세트도 마련했다. 일본 북해도, 중국 장가계 패키지여행 상품을 비롯해 지중해 3개국을 일주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을 특가에 선보인다. 농협 1등급 한우 선물 세트는 45%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둔 고객을 위해 크리스마스 완구 상품도 선보인다. 캐치 티니핑, 헬로카봇, 또봇, 콩순이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장난감이 준비됐으며, 키보드 관련 상품을 최대 25% 할인한다.

할인 쿠폰 혜택도 있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신세계 몰과 신세계 백화점 몰 상품 구입 시 추가 할인되는 8% 장바구니 쿠폰을 선착순 증정한다. 이 외에도 SSG닷컴에서 사용할 수 있는 7% 상품 쿠폰을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백, 본점 지하 1층 ‘뷰티관’ 재단장

헬레나 루빈스타인, 스쿠 등 오픈

롯데백화점이 지난 13일 본점 지하 1층에 국내 백화점 최대 규모의 ‘뷰티관’을 재단장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뷰티관’ 재단장을 통해 향수 전문 브랜드 ‘로에베퍼품’을 강북 상권 최초로 선보인다. 또, 스킨케어 브랜드 ‘헬레나 루빈스타인’과 고급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스쿠’ 등도 새롭게 오픈한다.

전용 스킨케어룸 공간 서비스도 확대했다. 기존 ‘시슬리’, ‘라프래리’, ‘디올’ 등에 더해 ‘발몽’, ‘데코르테’, ‘아모레퍼시픽뷰티’에서도 사적인 공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스킨케어룸을 새롭게 선보인다.

재단장 기념, 고객 행사도 준비됐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25일까지 본점 뷰티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 뷰티관 전경 사진 /롯데백화점

금액의 최대 7%를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한다.

김종환 롯데백화점 본점장은 “본점 뷰티관은 면적과 브랜드 수뿐 아니라, 올해 매출까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고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리뉴얼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혜택도 올해 최대 수준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파이브가이즈, 내년 갤러리아 광고점 오픈

경기 남부권 대표 거점매장 기대

한국 파이브가이즈가 갤러리아백화점에 입점한다. 에프지코리아는 파이브가이즈 6호점을 내년 3월 갤러리아 광고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갤러리아백화점 점포에 파이브가이즈가 들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파이브가이즈 광고는 총 면적 384.2㎡(116평), 120석 규모로 오픈한다. 앞서 지난 9월 서울 외 첫 지역으로 오픈한 파이브가이즈 판교보다 더 큰 규모

로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거점 매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갤러리아백화점 내 첫 입점으로 한화갤러리아의 리테일 부문과 F&B 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갤러리아 광고는 파이브가이즈를 통해 수원 및 용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F&B 콘텐츠를 갖추게 됐다.

갤러리아 광고는 경기 남부의 핵심 상권에 자리잡고 있다. 인근 광고호수공원과 대형 아파트 단지, 오피스 빌딩 등 배후 상권을 고려할 때, 가족, 연인,

직장인 등 다양한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 주도로 2023년 론칭한 한국파이브가이즈는 오픈 1년만에 전 점포가 글로벌 매출 톱10에 오르는 등 큰 성과를 냈다. 국내 점포 확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에프지코리아는 지난 7월 ‘파이브가이즈의 일본 시장 진출’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파이브가이즈 인터내셔널과 체결했다. 2025년 하반기 첫 점포 오픈을 시작으로 향후 7년 간 도교를 포함한 일본 곳곳에 20개 이상의 매장을 연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CJ푸드빌, ‘빽스 마곡 원그로브점’ 오픈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빽스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마곡 원그로브점’을 오픈했다.

빽스마곡원그로브점은 지난 11월로 영업을 종료한 ‘등촌점’의 리로케이션 이전 오픈에 따른 것으로 등촌점은 빽스 1호점으로서 의미를 지닌 곳이다.

빽스마곡원그로브점이 위치하는 원그로브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직접

연결되고, 연면적 약 46만㎡로 축구장 3배 규모의 대형 복합 상업시설로 마곡지구 내 최대 상권으로 부상하는 곳이다.

빽스마곡원그로브점은 보다 현대적이고 프리미엄한 공간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약 300여 평의 규모에 274석의 좌석을 이용할 수 있어 여유로운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패션 시장’ 양극화 심화… SPA·백화점, 세대별 선택 엇갈려

2030은 트렌드, 4050 품질·안정성 SPA 브랜드, 가성비·디자인 강화 백화점, 4050 겨냥 콘텐츠 확대 홈쇼핑, 맞춤형 라이브 경쟁력 ↑

패션 시장에서 소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백화점 브랜드와 실속형 저가 의류 상품을 제공하는 SPA 브랜드가 패션 시장을 양분하는 가운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SPA 브랜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성비를 내세운 SPA 브랜드들의 매출이 2030 세대의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패션 시장에서 겨울철 특수를 누리는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패션 온라인 플랫폼 에이블리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SPA 브랜드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다.

특히,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시점인 지난달 18일~24일 사이 에이블리 SPA 브랜드 거래액이 같은 기간 298% 급증했다.

SPA 브랜드 별 매출 증가율을 살펴봐도 성장세는 도드라진다. 대표적인 SPA 브랜드인 스파오의 매출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



대표적인 스파 브랜드인 스파오 '푸퍼랜드' 성수 팝업스토어 전경 사진. 2030 세대 중심으로 오프라인이 이어 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랜드

비 25% 증가했다. 탑텐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SPA 브랜드의 성장을 이끈 것은 2030세대다. 무신사 스탠다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무신사 스탠다드의 전국 오프라인 매장의 연간 누적 방문객이 1028만명에 달했다. 이중 2030 세대가 70%를 차지했다는 게 무신사 스탠다드 측 설명이다.

이 같은 SPA 브랜드의 성장으로 패션 소비 시장 양분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패션 소비 시장 양극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만, 앞으로

SPA 브랜드들의 성장은 가성비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 가속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PA 브랜드라고 해서 품질이 나쁜 게 아니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까지 괜찮으니 애매한 중고가 브랜드들의 소비가 SPA 브랜드 쪽으로 빠져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패션 시장 양극화는 단순 가격 요인에만 따른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가격만이 아닌 세대를 중심으로 선호 차이가 생기면서 패션 시장 양극화가 생성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50대 여성 소비자 김 모 씨는 “저가 스파 브랜드 매장은 저렴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중년들이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 많이 없어 가지 않는다”며 “그런 매장은 ‘젊은 애들 옷 파는 곳’이라는 인상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중년층이 입을 만한 옷은 백화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 백화점 상품을 위주로 소비를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최근 롯데백화점 상품을 선보이는 라이브커머스 ‘엘라이브’에서 4050 여성 주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의류가 4050 여성의 주문 건수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4050 세대들의 니즈를 반영한 패션, 뷰티 상품을 확대하고, 현장 라이브방송 등 이색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롯데홈쇼핑 이정배 엘라이브팀장은 “2030세대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라방을 이용하는 4050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라방 이용 패턴을 반영한 상품 편성을 확대하고, 현장 라이브 등 이색 콘텐츠를 지속 선보이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CU ‘마음보관 캠페인’ 진행

BGF리테일의 편의점 CU가 종합광고대행사 에이치에스애드(HSAD)와 함께 모바일 커머스 애플리케이션 포켓CU를 활용한 ‘마음보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음보관 캠페인’은 고객이 ‘CU 키핑쿠폰’을 통해 1+1 행사로 받은 추가 상품을 포켓CU 애플리케이션에 보관하고, 이를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CU 키핑쿠폰’은 고객이 1+1, 2+1 등 증정 행사 상품을 매장에서 즉시 수령하지 않고, 쿠폰 형태로 포켓CU에 저장해 원하는 시점에 전국 CU 매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련된 기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전국의 결실 우려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

/안재선 기자

LG생활건강

아기옷 섬유유연제 출시

‘베비언스’ 3배 강화된 초고농축 성분

LG생활건강이 베이비&키즈 전문 브랜드 베비언스에서 ‘센서티브 베이비 섬유유연제 시그니처’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자사의 기존 섬유유연제 대비 3배 강화된 초고농축 성분이 특징이다. 기존 제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양으로도 향은 지속되고, 부드러운 옷감 처리, 마찰로 발생하는 정전기 방지 등과 같은 효과를 갖췄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LG생활건강은 녹차추출물을 활용한 성분으로 탈취 99%의 냄새 제거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색소와 보존제 9종을 배제하고 독일 더마 테스트 엑셀러트 등급, 에코덱 피부테스트, 동물성 원료 무첨가와 비건 인증 등을 획득했다.

LG생활건강은 베비언스 센서티브 베이비 섬유유연제 시그니처가 성능과 성분에서 차별화돼 아기 피부에 닿는 옷감에 사용하기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비언스 센서티브 베이비 섬유유연제 시그니처는 쿠팡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축구 전설들, 한자리에 모인다

이랜드뮤지엄

위대한 축구선수 100인전
2차 티켓 하루 만에 완판

이랜드뮤지엄은 지난 12일 공연 및 전시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를 통해 선보인 ‘위대한 축구선수 100인전 vol.1’ 2차 얼리버드 티켓이 하루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위대한 축구선수 100인전 vol.1’은 축구 역사상 위대한 선수들의 실착 유니폼과 트로피 등 100여 점의 진귀한 축구 소장품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대규모 전시다. 지난 11월 공개한 ‘슈퍼 얼리버드 티켓’이 조기 완판되며 추가 티켓 문의가 쇄도하자 2차 얼리버드 티켓을 준비했다.

해당 전시에서는 1970년대 펠레의



1994 미국 월드컵 결승전 매치 볼(브라질 vs. 이탈리아) /이랜드뮤지엄

국가대표 실착 저지, 메시의 커리어 주요 매치 컬렉션, 박지성과 손흥민의 실착 저지 등 진귀한 축구 역사의 순간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위대한 축구선수 100인전 vol.1’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10층 토포즈홀에서 열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뚜레쥬르,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로 진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8년만의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프리미엄 베이커리’ 리딩 브랜드로 도약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브랜드 리뉴얼은 기존 건강한 데일리 베이커리의 브랜드 철학은 이어가면서 제품과 공간의 혁신을 통해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신규 브랜드는 한층 선명하고 볼드한 서체와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경쾌한 느낌을 살렸으며, 추가로 브랜드명 (TOUS les JOURS)을 활용한 ‘TLJ’를 팻네임으로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했다.

뚜레쥬르는 지난 13일 강남역 한가운데(강남대로 438) 신규 콘셉트의 매장 ‘뚜레쥬르 강남직영점’을 오픈했다.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고 최신 트렌드



뚜레쥬르가 ‘TLJ’를 팻네임으로 적용하고 강남역에 새롭게 오픈했다. /CJ푸드빌

가 모여있는 핵심 상권인 강남대로에 위치한 만큼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뚜레쥬르의 새로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뚜레쥬르는 직영점 우선으로 신규 콘셉트의 매장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조아제약, 부종 증상·통증 개선에 탁월

‘베노플러스겔 50g’ 대용량 선봬

조아제약이 부종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 ‘베노플러스겔 50g’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베노플러스겔 50g은 대용량으로 출시돼 하지부종 등 넓은 부위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사용 가능하다. 이번 대용량 출시로 조아제약은 베노플러스겔 제품군을 2종으로 확대하게 됐다. 부종 증상 개선을 원하는 소비자는 베노플러스겔 50g을, 멍 치료가 필요할 때 베

노플러스겔 20g을 구매하는 등 사용 목적이나 빈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조아제약 측의 설명이다.

베노플러스겔 50g의 주성분 중 하나인 에스신은 혈관벽을 강화하는 성분이다.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브라디키닌의 작용 기전을 억제한다. 또 헤파린 나트륨은 혈액 내 트롬보키나아제와 프로트롬빈의 작용을 막아 혈액 응고를 방지해 멍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살리실산글리콜은 통증과 염증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넥슨, ‘카리플x스머프’ 컬래버 카트 2종

후속 콘텐츠… 초소형 버전 등장

넥슨이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의 ‘스머프’ 컬래버레이션 후속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지난달 21일 시작한 스머프 컬래버의 후속 콘텐츠다. 이용자들이 기다렸던 ‘익살이 스머프’와 ‘스머페트 푸리아더’가 초소형 버전으로 등장한다.

익살이 스머프는 ‘개구쟁이 스머프’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하나로, 이번 컬래

버를 통해 스피드전 카트바디로 제작됐다. 익살이 스머프와 ‘스머프 번호판’, ‘스머프 계기판’, ‘허영이 스머프 풍선’ 등은 ‘트윅스 스타’에서 만날 수 있다.

‘스머페트’는 스머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스머프 마을의 여성 스머프다. 레전드 등급의 하이브리드 카트바디로 제작됐다. 스머페트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매일 게임 접속, 랭킹전 참여 미션 등을 완료해 조각을 획득하고, 얻은 조각을 활용해 무료로 영구 소장이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vitna@



베비언스 ‘센서티브 베이비 섬유유연제 시그니처’ /LG생활건강



MAGICIAN SANTA



CHRISTMAS WREATH



Magical CHRISTMAS-MAS

LITTLE MAGICIAN RUDOLPH



MAGIC MUFFLER SNOWMAN



언론보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요건



SK이노베이션, 독거노인 봉사로 복지부 장관 표창
SK이노베이션은 15일 복지 사각지대의 독거노인 돌봄 봉사 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계열 사업 자회사 사업장이 있는 서울, 대전, 중평, 서산 등 전국 각지의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경제 및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SK이노베이션



제주항공, 연말 '사랑의 연탄나눔'... 약 1.2만장 전달
제주항공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제주항공 임직원 및 가족 70명은 12월 14일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연탄 약 1만2000장을 전달했다. 제주항공의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지난 2018년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7번째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아이 경제교실' 확대 운영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사회 공헌 활동인 '우리아이 경제교실'을 이주배경아동 및 가족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4번째 이어오고 있는 '우리아이 경제교실'은 전국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등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경제와 금융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그룹, 취약계층 아동 위한 '행복상자 만들기'
하나금융그룹이 연말을 맞이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성탄절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하나사랑봉사단' 임직원과 가족 총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나금융 퇴직직원으로 구성된 '하나금융동우회'도 함께했다. /하나금융그룹



송실대, AI 안전성 관련 세미나 온·오프라인 진행
송실대학교(총장 장범식) 인공지능(AI) 안전성 연구센터(센터장 최대선)는 지난 9일 오후 4시 전산관 다습홀에서 'AI 안전성 연구센터 세미나'를 개최하고, 엔지니어링(대표 이성권)과의 연구협력(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송실대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기사삭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참고). 대법원은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긴 하나 원고가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위 기사의 내용은 평가와 검증이 계속 요구되는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고 ▲배경이 된 사건이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인 점, 피고들은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한 객관적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에 한계가 있었고 ▲기사의 시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으며 ▲위 기사에 앞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기사가 있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위 기사 중 허위사실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원고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 이라면 위법성 조각 요건을 보다 엄격히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

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다.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여기서 위법성 조각의 요건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

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 결정된다. 나아가 법원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를 구분한다.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도 따진다.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한다. /법무법인 바른

LG, 연말 이웃사랑성금 120억 기탁

사랑의 온도탑 온도 약 3도 올라
LG는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13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하범중(주)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LG의 기탁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는 약 3도 상승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올 연말 모금 목표액은 4497억원으로, 목표액의 1%인 약 45억원이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오른다. LG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25년 동안 약 2400억 원의 이웃사랑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오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청소년 교육사업,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과 주거·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된다.



LG가 13일 서울 중구 소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갖고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왼쪽부터)하범중 (주)LG경영지원부문장(사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LG
LG 계열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 공동체에 동절기 물품 지원 및 기부금 전달,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등은 김장, 연탄, 생필품, 장학금, 후원금 등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협력사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료품 등을 담은 '사랑의 꾸러미'를 제작해 전달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박지원, 국내 발전사업 공로 인정 받아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

자원경제학회 학술상 '대상'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이 13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한국자원경제학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 15일 두산에너지빌리티에 따르면 박지원 회장은 국내 대표 발전소 주기기 제작 기업인 두산에너지빌리티를 24년째 경영해 오면서, 대형 원전 주요 기기 제작 국산화와 대한민국 가스터빈, 해상풍력발전기 독자 모델 확보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13년부터 340여 개의 국내 산·학·연과 함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착수했으며, 1조 원 이상의 자체 투자와 기술 개발로 2019년 세계에서 다섯



두산에너지빌리티 박지원 회장(오른쪽)과 김동훈 한국자원경제학회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이 지난 13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한국자원경제학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가스터빈 관련 7조 원 이상 수주를 목표로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2027년을 목표로 100% 수소를 연료로 하는 초대형 발전용 수소 터빈도 개발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 N 페스티벌 2024시즌에 출전한 선수 및 대회 관계자들이 시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 본격화

'현대 N 페스티벌' 종합시상식
현대자동차가 국내 모터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14일 경기 의왕시 현대N아카이브(가칭)에서 '현대 N 페스티벌' 2024시즌 종합시상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N아카이브는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에 사용된 현대차 고성능 N 브랜드 차량을 관리하는 시설로 내년 초 공식 개소할 예정이다. 현대 N 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로 동일한 차종 및 사양의 경주차로 경쟁하는 자동차 경주 대회다. /양성운 기자

메타빌드, 신성장 경영대상 장관 표창

산업부, ACx 시대 혁신기업 시상
메타빌드(대표 조풍연·사진)가 제 21회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경영대상은 산업통상부가 AI, 클라우드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전환을 주도하는 ACx(AI·Cloud driven Transformation) 시대의 창의적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1998년 설립된 메타빌드는 국내 시

장점유율 1위 '연계 SW(MESIM API G·ESB, mHUB·DataHUB)'와 거대 자연어처리 'LLa MONAI 멀티모달 플랫폼(sLLM·RAG·MLOps)' 'SaaS+AI+RPA+디지털휴먼 전자민원 플랫폼' '디지털트윈고통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고성장이며 성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영예를 안았다. /이혜민 기자 hyem@

부음

▲김기형(전 의정부시장)씨 별세 = 15일,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평은관), 발인 17일 오전 8시. 031-951-7444
▲김용호(향년 92세)씨 별세, 이강산(주)크레신 국내영업담당 이사·이강미

(매일산업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씨 모친상, 문미희씨 시모상 = 15일 오전 12시53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7일 오전 5시, 장지 인천 호곡원. 02-2227-7500

기장과 대통령



김승호의
시선

현직에 있는 기장 K씨께서 기사가 11월 28일 새벽 6시27분에 출고한 [‘수십미터 가는데 5시간 30분’...인천공항공사의 ‘민낯’]이란 기사를 자신의 SNS에 직접 언급 해주셨다. 감사하다.

이 기사는 지난 11월 말 폭설때 기자가 베트남 하노이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5시간 30분 동안 기내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객실 사무장·승무원과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기사를 포함해 해당 비행기에 탔던 250여 명의 승객들은 착륙 후 계류장이 멀리 보이지 않는 활주로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 후에야 내릴 수 있었다.

승객들은 영문도 제대로 모른채 간혀 있어야했다. 기내 방송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내용만 무한 반복했다. 승무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본인들도 들은 바가 없어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기장은 4시간 만에 방송에

나타났다. 하지만 기장도 “기다려달라”는 말이 전부였다.

대기가 서너시간을 넘기면서 한 승객은 공항장에 때문에 승무원의 도움까지 받아야 했다. 이곳 저곳에서 기침소리가 많아졌다. 숨쉬기가 답답하다는 호소도 곳곳에서 들렸다. 기내 불빛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참다못한 몇몇 승객은 휴대폰으로 112, 119 등으로 신고를 했다. 화가 난 일부 승객은 욕설을 하기도 했다. 특별히 욕할 대상이 있다기보다 화나서 뱀은 말들이었다. 5시간을 넘는 시간동안 승객들을 위한 버스 등 대체 운송 수단은 언급생생이었다.

내 기사에 대해 K 기장께선 “항공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시면 어쩌지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다. 그러면 절대 안된다.

그 기장께선 또 “기내의 전기와 냉난방은 엔진과 APU(보조동력장치)를 통해 공급이 된다”며 산소 공급 부족으로 적지 않은 승객이 기침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는 기사에 대해 반박도 했다. 그러면서 “소설을 쓰지 말라, 말이 되는 기사를 쓰라”고도 했다. 기사가 5시간 반 만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사를 쓴 이유는 긴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리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혀 주지 못한 승무원과 항공사의 부실한 대응을 꼬집기 위해서다. 지친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집을 찾고 공항을 떠나기전까지 국내 1위 대한항공이 한 일은 없었다.

화제를 돌려 나라안 상황으로 가보자. 국가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 내 나라 대한민국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저녁, 국회 탄핵 가결후 밝힌 담화에서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시대가 수십년전으로 회기하고 온통 불만에 떨고 국가를 걱정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소리다. 국민이 믿을 사람은 지도자 밖에 없다.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기장에게 목숨을 맡겨야한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그 기장이 국민, 승객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다들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신들만 ‘맞다’고 한다.

2024년 겨울,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이들을 통해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bada@metroseoul.co.kr

영원한 왕조는 없다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영원한 왕조는 없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를 제외하고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기아를 보고 있으면 저물지 않는 태양을 연상케한다. 특히 전동화 시대와 고성능 자동차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취임 이후 세계 시장 판매량 3위라는 업적을 달성한 뒤 현대차·기아는 세계 주요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죄기 위함이다.

조그만 땅 덩어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업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길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한 건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제품 기술력도 한단계 성장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하다보면 안방을 내어줄 수 있다. 특히 중국 자동차 업체 BYD가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BYD는 중국 본토 최대 딜러사인 하모니오트 그룹과 손잡고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BYD는 이미 유럽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중국 내수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두 배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BYD는 현대차·기아의 안방인 한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BYD가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차를 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에 대한 선

입견이 없는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스파트너스(어피너티)가 국내 렌터카 시장을 장악한 것도 BYD의 한국 진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전기차 업체는 국내 지방 렌터카 업체와 협업을 통해 무료 시승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국내·중국 소형 전기차를 1박 2일간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만약 BYD가 렌터카 업체를 통한 고객 경험을 쌓아간다면 국내 시장도 안심할 수 없다. 현대차·기아는 중국차에 안방을 내준 브랜드라는 글로벌 시각이 생겨날 수 있다. 결국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중국 제품은 값싸고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옛말이다.

/ysw@

오늘의 운세

12월 16일 (음 11월 1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기대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48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서글프다. 60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노력에 대한 보답. 72년생 게으르고 미루다보니 언젠가 남에게 뒤처지게 된다. 84년생 격한 말로 상대의 마음을 다친다.



37년생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이기적으로 된다. 49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역할을 다한 것. 61년생 주변 사람과의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 발생. 73년생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이가 빠질듯 시련. 85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곧 봄이 온다.



38년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50년생 먼 여행을 삼가고 낯선 사람과 여행을 조심. 62년생 진인사대천명이나 최선을 다해 마무리. 74년생 하찮은 걱정은 버리고 과감하고 부지런히 행동. 86년생 원점에서 시작하는 마음.



39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51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63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면 열 번 생각하고 행동. 75년생 지출을 해야 변화가 온다. 87년생 평소 모아둔 비상금을 활용해서 일을 처리.



40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지자. 52년생 마른논에 물 들어오듯이 일이 해결. 64년생 밤을 견뎌야 찬란한 새벽을 본다. 76년생 이리저리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다. 88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젊은 날이니 마음껏 즐겨라.



41년생 끈끈한 포기가 일을 더 빠르게 진행 시킨다. 53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있으니 마음을 굳게 먹어라. 65년생 바람이 불어다녀 바람이 시작. 77년생 실패에 대한 걱정 보다는 일단 시작해야. 89년생 사탄적 자량에 입이 침이 마른다.



42년생 실력 있는 상사의 도움으로 성과가 높다. 54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일단 관망. 66년생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78년생 못하면 내일로 미루게 하는 마음을 접자. 90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



43년생 앞에 나서게 되니 바쁘다. 55년생 병도 약도 내 탓임을 잊지 말자. 67년생 내가 편안해야 자식이 편하다. 79년생 금전 문제는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91년생 자식에게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함을 가르쳐라.



44년생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에 속는다. 56년생 미래를 위해 투자는 하지 말아야. 68년생 발전이 느리지만, 현상 유지가 최선. 80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 된다. 92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편하게.



45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하다. 57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일을 처리해라. 69년생 누군기를 들고 싶다면 실력을 키워야 할 듯. 81년생 기쁜 소식 이오니 고민이 일시에 해결. 93년생 보이스피싱과 피싱 투자에 주의.



46년생 금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58년생 밀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지 않은지. 70년생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82년생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가 없이 한순간이나 나타하지 않도록. 94년생 심신이 고단하니 재물은 들어온다.



47년생 삼재기도를 해보는 것도 새 출발에 도움이 될 듯. 59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 71년생 나이 들면 입은 무거워져야 한다. 83년생 나의 게임을 반성해보고 오늘을 시작. 95년생 지금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김상회의四季

오복과 인생(1)



오복(五福)을 인간 행복의 우선이라고 보았다. 오복이 무엇인가? 수(壽)·부(富)·귀(貴)·강녕(康寧)·자손중다(子孫衆多), 이 다섯 가지를 말한다. 수명만 길어서도 안 되고 많은 재물과 명예, 건강과 자손 또한 많이 낳고 흥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쉽지 인생을 살다보면 이 다섯 가지를 고루 갖춘다는 것은 천복이 아니면 어려운 것임을 실감한다. 재물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허사요, 몸이 건강해도 재물이 박약하면 삶이 구차하고 사람 노릇을 못 할 적이 많다. 귀함이 부족하면 때로는 간과 쓸개까지 내려놓고 치욕을 겪기도 한다. 그래서 명예를 얻고자 그리 애쓰는 것이다. 자손이 창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재와 명예가 있다 한들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조건 없이 숭상하는 유교 사회에 있어 자손의 흥성은 비록 나는 죽어 흙이 된다 해도 나의 존재 영속성을 담보하는 것은 자손들이기 때문이다. 재와 명예가 높다 한들 자손이 없으면 이보다 불쌍한 일이 없다. 왕가라 할지라도 오복은 쉽지 않다. 단명한 왕들이 대부분임이 이를 증명한다. 명은 대부분 건강과도 연결된 것이어서 왕가의 사람 중 건강과 수명을 오롯이 즐긴 숫자는 삼분의 일도 안 될 것이다. 그러니 결혼 예단 중 각시 쪽에서 준비하는 이불이나 수저 예단에 목숨 수(壽)와 복(福) 글자를 새겨 넣어 장수와 건강을 염원했다. 또한, 새로 집을 지을 때 상량(上梁)을 하면서 대들보에 연월일시를 쓰면서 그 밑에 “하늘의 세 가지 빛에 응하여 인간 세계엔 오복을 갖춘다(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라고 쓰는 것이 전통적 관례가 된 것이다. 사주 여덟 글자에 그 사람의 수명 건강 재물 자손의 흥성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8	4	1		
3		1			5 9 6
4					3 8 7
			3	4	
			2	8	
	6	7			
9 6 3					1
8 1 5				9	4
	7	9		8	5

7	5	1		6	3			4
			4		5			6
	9	4						
4			2			3		
		8				1		
		5			6			9
							4	7
	1		3	4				
8		5	9		7	3	6	

9	8	6	1	2	7			
7	6	9	6	9	1	8		
1	9	2	8	7	9	6		
8	7	2	9	1	6	9	6	
8	1	9	8	7	2	6	7	
6	2	7	1	8	9	2	9	
9	8	9	1	9	6	7		
9	6	9	7	2	1	8	9	
2	8	1	6	7	9	8	2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7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I 교육에 창의·전문성까지... 미래 이끌 디지털인재 육성

2025 사이버대 가이드

경희사이버대학교

국내 최초 사이버대, 혁신교육 선도 교육부 교육혁신 지원사업 선정 첨단기술 적용한 교육행정 시스템 신·편입생 98% 장학수혜 등 지원



경희사이버대 전경.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경희학원이 2001년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버대학으로, 7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경희대와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면서 혁신적 교육 노하우를 쌓아왔다.

2025학년도에는 학부(과) 개편·신설을 통해 AI, 빅데이터, 스포츠 비즈니스와 첨단 전자 정보 기술, 다문화 사회와 글로벌 자율 학습 등 현대 사회의 핵심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선보인다. 학생들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능력을 기르도록 설계된 교육을 통해 각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경희사이버대는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9개 학부, 35개 학과

(전공)에서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진행한다.

◆'글로벌자율학부' 등 학부 개편·신설 2025학년도에 신설되는 전자정보공학과는 차세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다룬다. 학생들은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의 AI·빅데이터경영전공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경영 전략을 학습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최신 데이터 분석 도구와 AI 활용법을 교육한다.

이주배경 성인학습자의 사회적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자율학부도 신설된다. 이주배경 자녀,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 체제와 장학 제도를 운영한다.

◆교육부 평가 3회 연속 최우수대학 선정 경희사이버대는 2007년 원경대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대학(A등급)으로 선정된 이래, 2013년과 2020년에도 연이어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며 3회 연속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가 주관한 원경대학 인증·역량진단은 원경대학의 경영, 교육환경,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쟁

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경희사이버대는 2007년 원경대학 특성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사이버대학 선취업-후진학 특성화사업 ▲2015년 사이버대학 교수-학습 우수사례 공모전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8년 성인 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등 여러 국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2024년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2주기 원경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AI 기반 교육 혁신으로 미래 대학 선도 경희사이버대는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0월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교육·행정 플랫폼인 '차세대 교육행정시스템'을 오픈했다.

또한, 경희사이버대는 온라인 교육의 핵심인 '수업'과 '콘텐츠' 전반을 혁신하는 'KHCU 혁신형 교육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혁신 사업은 AI(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에 적용해 기존 온라인 교육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폭넓은 장학 수혜, 경희가족 복지 혜택 경희사이버대는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고취시키고 학업에 의지가 있는 학

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넓은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4학년도 기준 신·편입생 98%가 장학 수혜를 받고 있다. 전업주부, 직장인, 여성가장, 농어민 등 약 40여개의 교내·외 장학금이 있으며 장학금별 조건 충족 시 수업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이중 수혜도 가능하다. 또한 경희학원과 연계한 경희가족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졸업 후에도 경희대·경희사이버대 대학원 진학 시 동문장학을, 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병원 이용 시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현재 국내 우수 대기업·공기업 등과 탄탄한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와 산업체 협력이 체결된 사업체에 재직 중이라면 전월료, 수업료 등에서 다양한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 신세계, 롯데, LG 디스플레이, CJ푸드빌, 한식벽제그룹 등 총 약 800개 기관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장학혜택과 더불어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으로 기관별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지원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세상 밖으로”...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립청년 발굴... 우울감 20% 감소 37%, 취업·진로 변화 등 자립 성과

서울시는 올 한해 고립·은둔 청년 정책으로 1700여명을 발굴해 약 850명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용기를 내 서울시 사업을 신청했거나 지역사회를 통해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은 총 1713명이다. 이 중 사회적 고립 척도 검사와 초기 상담을 거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 받은 인원은 852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다.

시는 사업 참여 전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의 전반적 고립감이 20.3% 감소(평균 66→52.6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외적 자원인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척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자기 효능감은 19.7%(14.2→17점), 사회적 지지는 9.6%(20.9→22.9점) 상승했다. 우울감은 20.5%(19.5→15.5점) 줄었다.

전체 응답자 249명 가운데 사업에 참

여한 뒤 취업이나 진로 변화 등의 자립을 경험한 이는 92명(37%), 자격증을 새롭게 취득한 청년은 58명(23%)이나 됐다.

시는 이번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해 내년에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정책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 힘껏 도약하고 웅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시민이 뽑은 서울시 정책은 ‘기후동행카드’

온라인 투표... 2위는 ‘손목닥터9988’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올 한 해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정책으로 뽑혔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3~9일 실시한 ‘2024 서울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에서 기후동행카드가 6만9821표(득표율 12.49%)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온라인 투표는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정책 10개를 대상으로 포털 사이트와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 외국어 누리집에서 진행됐다. 참여 인원은 18

만6388명이었으며, 총 득표수는 55만9164표였다.

2위에는 ‘손목닥터9988’(6만2690표, 11.21%)이, 3위엔 ‘서울야외도서관’(6만129표, 10.75%)이 이름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대중적으로 시민의 일상을 풍족하게 만들며 한 해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은 정책들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 호응을 반영해 기후동행카드 적용 지역과 혜택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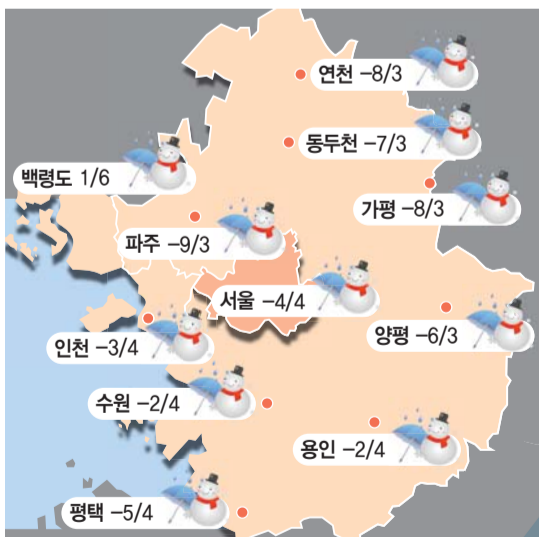
해돋이 / 07:40 | 해질 / 17:15

12월 16일 (월)
음력 : 11월 16일

수도권 날씨

-4 ~ 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안양시, 산모 건강 지원

안양시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을 돕고자 관내 산모 2258명에게 5만원 상당의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꾸러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는 총 1억6350만원을 편성해 지난 4월부터 ‘맘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 축산물꾸러미 지원으로 지역 축산업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이며, 거주증명과 자녀 출생증명이 완료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안양(경기)=김대의 기자

인천시, 국비 5조8697억 확보... 역대 최대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3846억 증가 철도사업 등 미래성장 위한 중요 역할

인천광역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 5조 86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4851억 원보다 3846억 원(7.0%)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5조 원을 초과하는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정부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되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유례

없는 상황에서도 전년도보다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63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793억원 ▲인천발 한국고속철도(KTX) 350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232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4억원 등이다. 이는 인천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바이든, 韓 권한대행과 통화...美 철통 같은 약속 재확인
▲트럼프, 북한 문제 등 담당특사 발표...적극적 대북정책 의지 /사진 뉴스스

▲카라카스의 아르헨 외교단지의 베네수야당인사들, 안전한 대피로 요구
▲블링컨, 대통령 탄핵가결에 “한국 민주적 회복력 보여줘” 평가



▲외신, K-Pop 응원봉 시위 조명...“韓 민주주의 희망” /사진 뉴스스
▲이라크 총리, 시리아에 대한 외세의 내정 간섭에 “경고”



유통·식품업계
오징어게임2
한정판 선택
니



Life

SPA·백화점
패션시장
양극화 심화
L2



“유저에게 ‘맞춤 재미’ 선사... 일상에 스며드는 게임 만들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위메이드플레이
이경민 PD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친근하고 편안한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함께 휴식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게임을 선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경민 위메이드플레이 PD의 말이다.

◆‘애니팡4’ 4년 만의 출시작...기술·역사·노하우 모두 담았다

위메이드플레이의 이경민 PD가 총괄하게 된 ‘애니팡 4’는 2020년 6월 출시된 모바일 퍼즐 게임으로, 위메이드플레이의 대표 지식재산권(IP) ‘애니팡’을 활용한 오리지널 애니팡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2012년 ‘애니팡’, 2014년 ‘애니팡2’, 2016년 ‘애니팡3’에 이어 출시한 ‘애니팡4’는 직전 시리즈 출시 4년 만의 출시작으로 모바일 퍼즐게임 10년의 기술, 역사와 노하우를 담은 게임으로 평가된다.

‘애니팡4’는 국내 모바일 퍼즐 게임 중 가장 화려한 그래픽과 다양한 이벤트, 게임 속 미니게임을 갖추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모바일게임으로 국민 게임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애니팡4’는 주 단위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정규 퍼즐 스테이지만 지난 11월 6200여 개를 돌파했으며 주 또는 월단위 이벤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간 7종, 월간 4종 미니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첫 여성 PD “유저와의 소통 방식 통해 업데이트 이어 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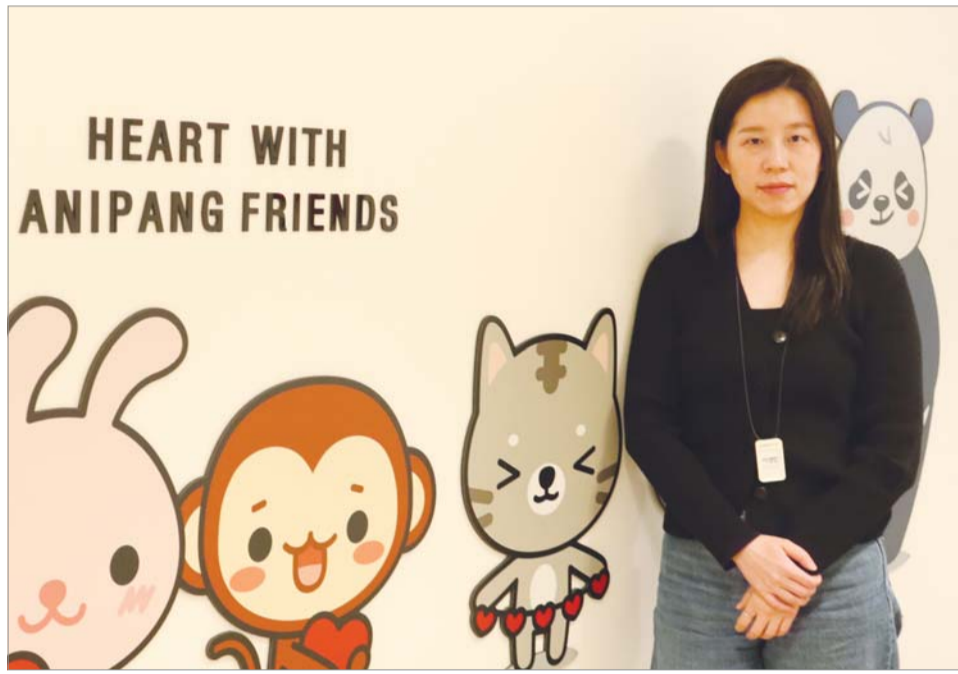
이경민 PD는 2012년 모바일 애니팡 시리즈 첫 출시 이후 13년만에 배출된 첫 여성 PD로 알려지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이 PD는 첫 여성 PD가 된 것에 대해 “플레이어 맞춤형 재미”를 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강한 책임감이 생겼다고 한다.

이 PD는 “사실은 제가 첫 여성 PD인지 모르고 있었다. 라이브 게임 신입 PD로서 배워야 할 게 많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느라 인터뷰 의뢰가 들어오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여성이면서 UI/UX디자이너 경력의 장점을 살려 이용자들에게 ‘플레이어 맞춤 재미’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이용자들과의 소통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애니팡의 첫 ‘신입 여성 PD’라는 것에 열정을 갖게 됐다는 그는 본인의 강점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꼽았다.

이 PD는 “여성에게는 커뮤니케이션(소통)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팀원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 유저들과의 공감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소통하고 반영하는 게 게임



이경민 위메이드플레이 애니팡4 PD

/위메이드플레이



국민 퍼즐게임 ‘애니팡’ 첫 여성 PD 커뮤니케이션 강점으로 재미 이끌어

15년 이어온 시리즈에 부담 느꼈지만 탄탄한 배경에 자신있게 콘텐츠 선택

이용자 플레이 분석해 업그레이드 진행
연승 관련 신규 콘텐츠로 성취감 선사
앞으로도 친근한 게임으로 다가가고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게임의 발전은 유저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재미 있는 것, 없는 것, 부족한 부분 등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니팡4 담당 부담스러웠지만 탄탄한 게임성 덕분에 오히려 자신감 충만”

‘애니팡 4’의 업데이트 등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이 PD는 본인이 맡은 ‘애니팡4’에 대해 15년간 이어온 국민 모바일 게임인 ‘애니팡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받아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애니팡4는 국민 퍼즐 게임인 ‘애니팡’ 시리즈의 정통성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재미 요소를 더해 한 단계 진화한 퍼즐 게임이다. 기존 3매치 퍼즐의 직관적이고 쉬운 재미를 유지하면서도, 스테이지별로 특색 있는 미션과 퍼즐 기믹을 다채롭게 구성해 이용자들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감을 선사한다.

이용자 간 실시간 대전이 가능한 ‘로얄’이나 게임내 소셜기능인 ‘팸’을 운영해, 퍼즐을 넘어선 커뮤니티적 재미가 애니팡4만의 차별화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단순히 퍼즐을 푸는 것을 넘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새로운 차원의 퍼즐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다. 실제 애니팡4는 일간 이용자가 13만 여명에 달한다.

이경민 PD는 처음 전 세대가 즐겨하는 애니팡4를 담당하게 된 데에 큰 부담이 있으면서도 자신이 있었다.

이 PD는 “애니팡4를 맡게 되었을 때 가장 최신작인 만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애니팡 시리즈라는 역사와 탄탄한 스토리, 게임성, 전 세대가 즐겨하는 게임이라는 데에 안도도 됐다. 4년 넘게 함께 해 온 팀원들과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업데이트 했는데 유저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게 애니팡의 힘인가 싶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친근하고 편안한 게임을 만들고 싶다”

애니팡을 시작으로 애니팡2·3·4까지 그래픽, 사운드, 스토리, 퍼즐 플레이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변화를 시도해왔다. 특히 애니팡4는 이러한 진화의 흐름을 집대성한 가장 최신작이다.

이에 이 PD는 유저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데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신 글로벌 퍼즐게임으로 높아진 유저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업데이트를 수차례 진행하여 게임 로딩시간을 단축하고, 더 똑똑해진 퍼즐 플레이와 이벤트 진행 흐름을 더욱 쾌적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등 전체적인 유저경험을 개선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연승관련 콘텐츠를 추가하여 이용자들이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 때마다 더 큰 성취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데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달 1일에는 100개의 퍼즐을 플레이해 건설하는 100층짜리 ‘애니팡 타워’가 새롭게 오픈했다.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이용자들이 남긴 플레이 지표를 분석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즌2가 오는 16일에 오픈 될 예정이다.

또 내년을 맞이해 눈꽃축제와 설날 요리마당 이벤트가 준비됐다. 이를 시작으로 계절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도 이어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도전! 낚시왕!’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애니팡4 유저들에게 다양한 팬서비스도 하고 있다. 출시를 축하하는 모델로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선정해 이벤트를 진행하며 유명세를 탄 ‘애니팡4’는 최근 배우 류승룡과 ‘애니팡 페스타’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전한 바 있다. 또한 출시 4주년을 맞이한 올해 5월에는 애니팡4의 일일 개발자 체험 공고에 일당 천만원을 발표하며 게임팬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유저들이 확장된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고심해 개발하고 있다. 팬서비스 또한 일환이다”며 “2025년에는 5주년을 앞두고 있는 애니팡4를 더욱 알리기 위해 이색 이벤트인 ‘북극유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PD는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친근하고 편안한 게임,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게임, 귀엽고 즐거운 애니팡 친구들과 함께 퍼즐 풀며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애니팡4 메인이미지.



애니팡4 타워.



▲‘황희찬 침묵’ 울버햄튼, 승격팀 입스 위치에도 덜미...리그 4연패
▲‘윈첸전 2골’ 이재성, 최우수선수 선정 ‘눈부신 수준...마인즈 핵심’ /사진 뉴시스

▲KIA, 소크라테스와 결별하나...위즈덤 영입 추진 “신체검사 남아”
▲키움 외야 한자리만 국내 선수...한층 뜨거워지는 경쟁



▲한국 쇼트트랙, 안방서 열린 4차 월드컵 투어 흥성 계주 숲 /사진 뉴시스
▲이수민, LIV 골프 프로모션 공동 8위...인터내셔널 시리즈 출전권 획득

지난 수십 년간
오직 고객만을 위해 날아온
두 항공사가 만납니다

이륙의 순간마다
새롭게 준비하는 다짐으로

고객의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비행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